東大新聞

發行人 徐燉珏
編輯人 南都泳
主幹 宋赫
編輯部長 金衡均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区筆洞3街26
東國大学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㉗8131~9
本社直通 ㉗8577

每週火曜日發行

卒業班 就業率 높아져

經商大91%로 斷然首位

2백70餘名이나 合格

1일現在, 各企業體集計發表

명년도 졸업반의 취직률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 12월1일 현재 각종 公開競試서 총 2백70여명이 합격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같은 결과에따라 금년말까지는 취업희망자 전원이 취업의 기회를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보여 취직전선에 고무적인 뉴스가 되고 있다. 經商大를 중심으로한 취직관련 일부 학과의 취직시험 대비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72학년도 졸업예정자의 취직율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5일 학생課 종간집계에 의하면 12월1일 현재 졸업예정자중 취업이 확정된 수는 2백70여명에 달한다. 이 집계에는 法政大가 빠졌으며 개인, 추천서 류등의 경로를 통해 企業体社員으로 채용된자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여 실제 취직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經商大의경우는 OTC후보생을 제외한 취직희망자 90명중 82명의 졸업예정자가 각종 企業体의 公開경쟁시험에서 合格하여 금년말까지는 전원 취업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명년도 일반필 OTC ○○○명의에 文理大와 師大를 중심으로한 敎師진출확정이 이미 60명선을 넘고 있어 명년도 졸업예정자는 더부분 취직의 좋은 문을 무난히 통과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공개채용시험등에서 좋은 성적을 나타낸 것은 ①학생들의 학구열이 향상되었다는 것과 ②학교당국의 특별한 과외강의 배려로 취직의 신시③각종 다소 높은 취직률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기업체 취직현황은 다음과 같다.

◇金融機関 ▲國民銀行(9) ▲住宅銀行(3) ▲農協(5) ▲韓一銀行(2) ▲기타市中銀行(2) ▲朝興銀行(2) ▲地方銀行(2) ▲一般企業体(株) ▲現代건설(9) ▲三星그룹(3) ▲大韓항공(3) ▲오리엔트時計(3) ▲三養식품(7) ▲三立식품(7) ▲東明木材(2) ▲現代造船(2) ▲天一社·자동차保険, MBC, 海運公社, 동방해상등40여개業体에60여명. <無順>

◇朴正熙大統領이 徐總長에게 勲章을 수여하고있다.

徐총장에 國民勳章

5일, 교육헌장紀念式場에서

徐燉珏總長은 지난 5일 10시 中央庁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교육헌장선포 제4주년기념식에서 朴正熙大統領으로부터 國民勳章모란장을 받았다.

徐總長은 이번 기념식에서 국민교육헌장정신구현에 이바지한 공로로써 특히 사회분야발전과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적을 높이평가받아훈장을수령한것이다.

한편 徐總長은 지난 70년에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령한바 있는데 이는 본교 총장으로 재직하는 현재까지 꼭 10년간 교육계에 헌신한 공로이다.

徐總長은 44년 日本京都帝大법학부를 수료한후 京城大法文学部, 서울大 大学院, 美서연·메소디스트대학 등지서 수업한후 51년6월~53월 본교 전임강사로 출발, 교육계에 발디딘이후 서울大法大교수·학생처장·司法大学院長·法大学長등을 역임, 교육계에헌신해왔다.

出版委員會 발족

첫사업, 교양교재改編

교양敎材의 質的향상과대학내의 출판사업을 전담할 出版委員会가 지난 11월6일 발족, 지난 2일 그첫 회의를 가지고 명년도 부터 사용할 교양학부교재의 전면 개편작업에 나섰다.

이번 구성을 본 출판위원회는 이제까지 교양만을 편찬해 온 교양교재편찬위원회도 흡수, 학교 출판물 전반에 걸쳐기획·관리하게 될다.

위원장에 副總長, 부장에 교양敎材의 質的향상과대학내의 출판사업을 전담할 出版委員会가 지난 11월6일 발족, 지난 2일 그첫 회의를 가지고 명년도 부터 사용할 교양학부교재의 전면 개편작업에 나섰다.

이번 구성을 본 출판위원회는 이제까지 교양만을 편찬해 온 교양교재편찬위원회도 흡수, 학교 출판물 전반에 걸쳐기획·관리하게 될다.

위원장에 副總長, 부장에 교양학부장을 비롯 당연직 위원 5명과 일명직위원, 감사, 출판간사등 多數의교수들로 구성된 出版委員会는 교재편찬사업의에 교수·학생의 논문출판등 대학출판문화사업에 기여하게 될다.

總長의 임명으로 위원이 구성되며 각분야별로 강령해야할논문을 선정, 출판하게될위원회의 일명직위원, 감사등의임기는 2년이다.

이번 구성된 出版委員会은 다음과같다.

▲위원장=吳法眼副總長(당연직) ▲출판부장=金起東(당연직) ▲당연직위원=李敏昌, 李東林, 郭泳学生処長, 朴珍錫総務処長, 南敎発学部長(당연직) ▲임명직위원=金仁滉敎務処長, 南宣祐, 安思明, 韓相範, 李鍾益, 金鍾遠, 沈敏厚교수 ▲감사=張庚鶴, 李延植교수 ▲출판간사=李震圭교수

學生課體育指導委 새로發足

지난 11월16일 学処長회의에서는 그간 체육활동을 전담해온 체육지도위원회명칭을 폐지하는등 체육활동의 장단기계획을 논의하고 学生課內에 체육係를 신설하는 한편 본교 체육진흥연구를 전담할 체육지도위원회를 새로이 발족 시켰다.

이같은 결정은 企画委員会(総長직속)의 교내機構운영분석 결과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종래의 체육지도위원회 일부는 새로생긴 機構에 폐합되었다.

금번 새로 구성된 체육지도위원회는 학생처장을위원장으로 교무처장, 체육학과장, 교양학부장및 체육학과주임교수등 当然職위원 5명과 일기 2년의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각운동부별 部長, 코치는 위원장과 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安思明교수參加

國際세미나등에

본교 전자계산소소장 安思明교수(農林大)가 세계적인 콤퓨터회사인 IBM社의 초청으로 11월12~24일 일본의 富士通社의 「프로·세미나」 및 「매니저敎育」과 후지스社의 「프로·세미나」에참석했다.

安교수는 이기간동안 東京롯데극에서 열린 제2차 ECAFE 京롯데세미나에도 참석한후 東京商大, 日橋대학의 콤퓨터센타등도 들러 교육기관의 콤퓨터이용현황을살피고 귀국했다.

宋堯仁교수副會長

王立亞細亞學會

◇宋堯仁교수

文理大 宋堯仁교수(자매지 동국포스트主幹)가 지난 6일 한국일보강당서열린 王立亞細亞学会 한국支部 연차총회에서 副会長으로 被選되었다.

영국에 본부를 둔 王立亞細亞学会 한국支部가 설립된 것은 72年前으로 포함한 약천명의회원을가지고있다. 주한 프랑스大使「P·람디」씨가 회장으로 선출된 同学会는 한국学연구를 비롯, 한국의 宗敎, 文化, 政治, 社会등 한국학연구에주력하며 월2회 강연회와 韓国学학술지등을발간하고있다.

「리포트」論題발표

16일 제출마감

교무과에서는 지난6일부터 시행되고있는 学期末試験을 교수재량에 따라 시험치르지않고 「리포트」제출로 대치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그에따른 各学科의논문제목을일괄발표했다.

이번 「리포트」는 담당교수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제출기간이 16일까지이으며 원고枚数에는 제한이없어서 다른 학과의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수강학과의 논문제목을 참고 (国敎科의 고전문학과 같은경우, 国文科에만 발표) 해야한다.

今週一言

喜法臥安,
心悅意清。
聖人演法,
慧常樂行。

법을 즐기면 언제나 편안하다.
그 마음은 기쁘고 그 뜻은 깨끗하다.
이런 어진사람은 성인의 법을 들어 그것을 항상 즐겨 이 행한다.

<法句經>

보리수

覺

(覺) 등이 그것이다.

2, 知覺은 먼저의감각을 종구체적으로 분별하는 작용이니 보는 物像과는 소리가 무엇이는 작용이다.

3, 生覺은 있었던것을 다시 기억하고 또새것을 알려는 작용이다.

4, 覺醒은 「정신차림」이니흐리터분한정신상태에서 벗어나 깨달음이 또렷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작용이다.

5, 自覺은 각성과같은 심과같은 뜻으로 사용되는데서 이 것이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작용이다.

以上의 것은 다 一般的인 깨달음의 작용이다. 여기에서 다시 높은 次元으로 전개된것이 仏敎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다.

1, 本覺=우리의 정신은 본디 깨달음을 그 바탕으로하고 있다는 精神 本体觀이다.

2, 不覺=본디 깨달은 그 바탕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가리어 있는 상태이다.

3, 始覺=본디 깨달은 마음의 本体로 비로소 발견한 것이다.

4, 正覺=眞理의 참모습을 똑바로 깨달음이다. 宇宙와人生의 본바탕을 바로 사무쳐 깨달음이다.

5, 大覺=正覺과 같으나 모든 것에 다시 의심이 없는 깨달음이다.

6, 円覺=宇宙, 人生의 모든 이치를 남김없이 등글게 깨달음이니 이 正覺, 大覺, 円覺을 성취한 것이 곧 仏陀이다.

<李鍾益>

冬季써클活動確定

「리더쉽·워샵」26~30일

이 시작되므로 내년과 단체·써클등에서는 비롯, 마찬가지로 동계수련대회등 각종계획을 마련하고있다. 그러나 예년에비해서 그 수와 종류가 현격히 줄어들어, 학생들의 방학생활은 꼼부에 치중케 될것같다.

리더쉽·워크샵

본교 学生指導研究所(所長=김형배敎授)가 학생지도자양성을 위해 매년방학중 실시하는 제6회 冬季리더쉽·워샵이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방학 시작되며 각단체 단체·써클등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동계수련대회등 각종계획을 마련하고있다. 그러나 예년에비해서 그 수와 종류가 현격히 줄어들어, 학생들의 방학생활은 꼼부에 치중케 될것같다.

리더쉽·워크샵이 오는 20일부터 실시된다. 6일부터 실시된 학년밖 시험이 16일 종료되면 20일까지추가재시험, 25일까지 「원터스클」이 開設되고 이어서 명년 2월중순까지 방학에들어가게된다.

이번 학년도에는 45일간의 휴교가 있었으나 본교는 이날 20일까지 법정수업일수 1백80일을 초과하므로 2월중補强계획은없는 것으로 한관계자에의해서밝혀졌다.

72학년도를 총결산하는 학기말試験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20일로써 시험이 종료되고 25일 교양학부 「원터스클」이끝나면 곧 방학으로 접어드는 大学街는 벌써 명년도 학사일정계획에 발돋움하고있다. 9일로 시험이 끝난 일부 3, 4학년들의 귀향소식과 아울러 석별의 인사 속엔 내일을 기약하는 철레는 음지임이 엿보이기도 한다. 금년도 冬季방학이 오는 21일부터 실시된다. 6일부터 실시된 학년밖 시험이 16일 종료되면 20일까지추가재시험, 25일까지 「원터스클」이 開設되고 이어서 명년 2월중순까지 방학에들어가게된다.

이번 학년도에는 45일간의 휴교가 있었으나 본교는 이날 20일까지 법정수업일수 1백80일을 초과하므로 2월중補强계획은없는 것으로 한관계자에의해서밝혀졌다.

72학년도를 총결산하는 학기말試験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20일로써 시험이 종료되고 25일 교양학부 「원터스클」이끝나면 곧 방학으로 접어드는 大学街는 벌써 명년도 학사일정계획에 발돋움하고있다. 9일로 시험이 끝난 일부 3, 4학년들의 귀향소식과 아울러 석별의 인사 속엔 내일을 기약하는 철레는 음지임이 엿보이기도 한다. 금년도 冬季방학이 오는 21일부터 실시된다. 6일부터 실시된 학년밖 시험이 16일 종료되면 20일까지추가재시험, 25일까지 「원터스클」이 開設되고 이어서 명년 2월중순까지 방학에들어가게된다.

이번 학년도에는 45일간의 휴교가 있었으나 본교는 이날 20일까지 법정수업일수 1백80일을 초과하므로 2월중補强계획은없는 것으로 한관계자에의해서밝혀졌다.

2月中 補强계획은 없어

21일부터 冬季방학

이 20일부터 본격적인 시작되므로 내년과 단체·써클등에서는 비롯, 마찬가지로 동계수련대회등 각종계획을 마련하고있다. 그러나 예년에비해서 그 수와 종류가 현격히 줄어들어, 학생들의 방학생활은 꼼부에 치중케 될것같다.

리더쉽·워크샵

본교 学生指導研究所(所長=김형배敎授)가 학생지도자양성을 위해 매년방학중 실시하는 제6회 冬季리더쉽·워샵이 오는 26~30일까지열린다.

이번 워샵에도 총학생회와 이번의원회장단을 비롯, 단체수속이끝난 학생의 예비소집은 20일 오후3시 학생회관 3층 회의실에서 있게된다.

東國思想研究會

동국사상연구회(会長=홍철학·管3) 에서는 18~23일까지洪庭植(仏) 金煐泰(仏) 교수와고인진助敎등의지도아래 金北고창 禪雲寺에서동계수련대회를 갖는다.

KUSA

KUSA-D(会長=金吉在·農経2)는 그동안 회원들의 노력으로 모금한가두판매수입금및 그의 회원들의 회비등을 예산으로 오는 21일부터 열흘간 청기도 연천군 고문 1·2리에서 봉사활동을펼쳐 1월6일까지 경북 칠곡군가산면 가산1동의6개지역에 봉사반을편성, 세마을사업에 입각한 다방면의 봉사활동을펼다.

현재타교 학생을 포함한 봉사대원을 모집중에있는데 지도교수는 李乘東(農林大)敎授, 지도교수는 李延植(法政大)敎授

길클럽

길클럽(会長=이정원·管2)은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1월11일부터 20일까지 林泰孫(法政大)교수 지도아래 등계봉사대를 조직했다.

会員 20명이 참가하게된 이번 봉사는 충북 제천군 송학면 무도리2구와충남부여군 장암면 하황리중 선택하여 농한기중의 부수입으로 새끼꼬기, 가마니 짜기, 뜨게질등과 담장·부엌개선·게시판및 마을 현황판 설치·마을문고 설치·문패달기·야학등의 계획을 짜놓고 있다.

한국문제연구회

한국문제연구회(会長=박행주·醫行2)는 12월20일~1월20일까지 수원 용주사에서 敬光震교수의 인솔로 등계수련대회를갖는다.

農魚村硏究部

농어촌연구부(部長=金河鐵·農経3)에서는 오는27일부터 1월6일까지 경북 칠곡군가산면 가산1동의6개지역에 봉사반을편성, 세마을사업에 입각한 다방면의 봉사활동을펼다.

현재타교 학생을 포함한 봉사대원을 모집중에있는데 지도교수는 李乘東(農林大)敎授

사진·学年末考試

柳在權군國家대표로

世界아마·레스링大會

◇유재권君

본교 레스링部의 柳在權(醫管3)君이 오는 13일부터 이란에서 열리는 세계아마레스링선수권대회한국대표로 선발됐다.

한국아마레스링협회 호프로그램에 가꽝받고 있는 柳君은 지난달 9일부터 本校 安漢永(体敎2)君과함께 일본에서 친선경기를갖는데 柳君, 安君 모두 3戰全勝을 기록하고 28일귀국한바 있다.

行政大論文발표회

行政學 석사학위청구자

行政大学院에서는 오는11일 오후6시부터 세미나A실에서 72학년도 졸업예정자중 행정학 석사학위 청구논문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발표회에는 석사학위신청자 12명이참가, 15분씩 발표하게 되는데 참가자는 발표일전에 논문 제지원록 발표하게 되는데 참가자는 발표일전에 논문 제지원록 한 전지훈련을 가진바 있는데 柳君, 安君 모두 3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석사학위 제출 인쇄, 교무과에 20부 차를 인쇄, 교무과에 20부 제출해야 한다.

이날발표자는아래와같다

▲姜声允(계획행정) ▲崔成福(인사행정) ▲金千一(인사행정) ▲朱学準(공안행정) ▲田泳和(공안행정) ▲李鍾錫(공안행정) ▲申芳休(계획행정) ▲夫彰敏(계획행정) ▲許万位(공안행정) ▲金潤權(조직행정) ▲朴瑞浩(계획행정) ▲申寧均(조직행정).

理事長一行 연습림巡視

운영실·태등 브리핑

朴理事長이사장을 비롯 徐영신태等 상세한 보고를 燉珏総長 吳法眼副総長등지 들었다.

남 2일 京畿道 鏡吉山의 林学科 演習林(楊州郡瓦阜面所在)을 순시 연습림 운영실태 및 브리핑 등을 받았다.

李光敏事務局長을 대동한 이날 숙사에서는 연습림관리소장 權雷沢박사를 비롯 徐영신태等 상세한 보고를 들었다.

教授交換계획進行활발

駒澤大와 野球競技도

본교 崔炳宇교수가 지난 3일 日本駒沢大 金鍾遠교수는 지난 10월13일 徐総長이 日本駒沢大 방문 시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에 의하면 駒沢大는 同校불교학부부장인 水野弘元박사特講과 야구경기 교환을 협의해 왔다.

金鍾遠교수歸國

8개국市場조사

金鍾遠교수는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28일까지 評価敎授団의 일원으로 EEC지역 8개국의 섬유무역시장을 조사하고 귀국했다.

경제부 商工部와 貿易協会 후원으로 영국과 스칸디나비아三国등 8개국을 돌려 同門 유학생들도 만난 金교수는 「이지역의 동향을 좋은 성적으로 별 불편없이 공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訂正

본지 5면36호(72·12·6일字) 1면 「趙明基박사 追悼文」에서 「趙明基박사 韓国仏教文化院院長이 아니라 韓国仏教文化院院長이었으므로 바로 잡습니다.

제10회本社學術賞

入賞者發表

本社 第10回学術賞 3대부문에서 다음과같이 모두 9名이入賞하였읍니다 9月末까지 作品을모집 仰別심사및 終合審査를거쳐 受賞者를 확정했으나 你校関係로 入賞者発表가 늦어졌음을사과드립니다.

◇人文社會科學分野

本 賞=李泰漢(経商大経営学科4年)
「韓国石油化学工業のMarketing」

奬勵賞=許韓旭(経商大経済学科3年)
「8·3措置와韓国経済의方向」

奬勵賞=李恒周(法政大法学科3年)
「公害問題에대한小考」

奬勵賞=呂益九(文理大史学科2年)
「妙清의乱」

◇自然科學分野

奬勵賞=朴持斗(農林大林学科4年)

奬勵賞=趙炳畢(農林大林学科1年)
「木材의多角的이용에따른 Fiberboard의 工程過程과性質에관한研究」

◇創作文學分野

本 賞=金元錫(文理大国文科3年)
小說「素描」

奬勵賞=李雲源(文理大国文科3年)
小說「두꺼비의自由」

奬勵賞=趙源柱(文理大国文科3年)
詩「겨울江辺에서」

奬勵賞=丁採琫(文理大国文科2年)
小說「바람부는날의」

◇審査委員

人文社會科學分野=安啓賢·張庚鶴·李延植·吳德永·韓炫·許蔔敎授

自然科學分野=權寧大敎授

創作文學分野=徐延柱(詩部)·吳永壽(小說部)·吳学榮(戯曲部)先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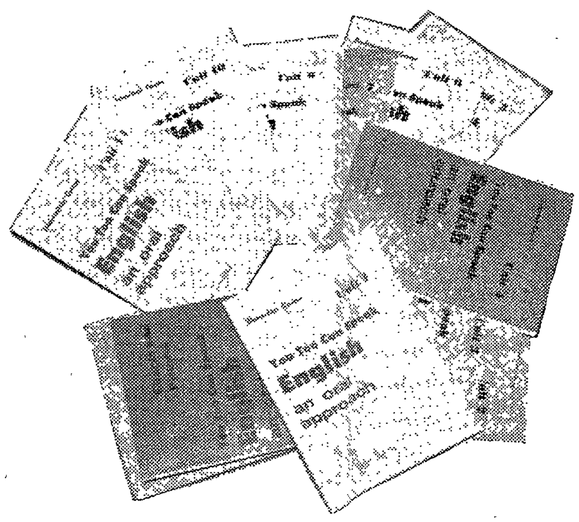
◇入賞者는 12月12日(火)正午에 本社로 集合할것

西紀1972年12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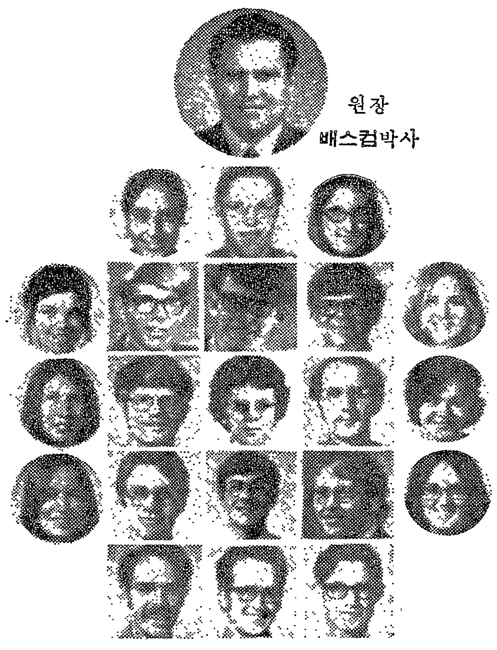
東大新聞社

당신도 영어를 말할수 있다.

한번 익힌 言語는 교정이 매우 힘듭니다. 특히 外国語는 가장 바르고 정확히 배워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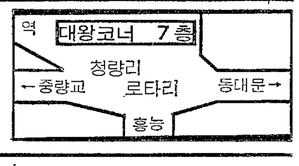
본 학원의 자랑
교 재: 1. 한국인만을 위한 특수편찬.
2. 본 학원만 가지고있는 유일한 책.
3. 세분화된 16권의 책과 그림책.
교 사: 1. 외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특수교육을 받은 전원 미국인.
2. 성실과 봉사를 모토로하는 그리스도인 교사.
방 법: 1. 16명 정원제.
2. 종일 연속강의.
3. 순수 회화학원.
4. 과외활동 매주8시간 이상.
5. 국내 최대의 어학실습실.
수강생: 1. 40%이상의 대학생들과 45%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들로구성된 수준 높은 수강생.
2. 개강 3년만에 2만명 이상의 수강생을 배출한 신뢰받는 교육기관.


원장 배스컴박사

서울·부산 동시개강
개강: 1월 7일 접수: 12월20일부터
※12월중 접수하시는분은 수강료 8,500원으로 할인

SDA 영어센타
ENGLISH LANGUAGE CENTER

청량리 대왕코너7층
☎ (97) 1275·(97)0031~9(交190)
부산 역전빌딩3.4층
☎ (6) 1036·(4) 1843



大役事시작된 變革의해

1972年의 回顧와反省

社說

앞으로 20여일이 지나면 수 있는 사항이 理事長·總長 및 副 主子年을 마지막 보내게된 總長의 새로운 취임이고, 그 들째로서 다。이제우리는 묵은 카렌 새總長 취임 以後 斷行된 一部 學処 卒業生 就業을 指摘하지 않을수없다。 校勢의 관련된 問題로서 体育振興과 이 두가지가 곧 校勢의 「바로메터」일 이오아大学과의 그것처럼 形式的인 同 意義交換으로 몰나지 않기를 당부하고 싶다。

校勢의 관련된 問題로서 体育振興과 卒業生 就業을 指摘하지 않을수없다。

10月維新의 理論

維新의 政治論理

李 廷 植
<大学院敎務課長
法政大政外科교수>

Ⅰ

「維新」이란 單語를 여기에서는 흔히 이해되고 있는 바와같이 「모든것이 개혁되어 새롭게 된」 또는 「묵은 제도를 아주새롭게 고침」이라는 평범한 뜻으로 받아 들이기로 한다。

그렇게도 불구하고 10·17이후 그 용어는 한국의 政治狀況에서어떠한 보다구체적인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하느냐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납득될수있을만큼 명백하게 풀이되어 있지 않은것 같다。그러므로 「維新」이란 말이 위에서 풀이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해된다면, 정치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또는 政治発展理論의 견해와는 어떻게 풀이되어야 하는가를 체계화해 볼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려는 것은 「維新」에 관한 政治発展論上의 관점만이 벅상이 되기때문에 의미론적인 비교고찰은 폐놓기로 한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政治学的인 용어는 영어의 〈renovation〉보는 〈restoration〉보 쓰이는데 특히 〈renovation〉의 원형인 〈renovate〉는 〈restore to good or strong condition〉으로 풀이되고있다。

그리고 또한 〈政治学事典〉(日本版)을 보면 다음과같이 보다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현재의体制를否定하고 과거의 체제에로 복귀한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반드시어떠한 역사의 역행을 뜻하는것이 아니라 새롭게 성숙되고 확립된 체제를 영관된 과거의 復古로서 正統化해 가는 이데올로기 的인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後者의 경우 새롭게 등장한 권력 또는 体制의正統性의 根拠를 새로운 体制 그자체가 內在的으로 안고 온〈모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權威에서求한다는 점에서위로 부터의 혁명에의한 正統化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할 수있는 조건을 지니는 것이된다。(下略)

그러므로 위의 몇가지의 풀이는 현실 未来 간의 乖離가 빚어내는 体制改革을 들 수 있을것이다。그리고 세째로는 ③민족적〈모랄〉을 確立하기 위한 「民族主義的体制」를 위한 体制收革이 있을수 있다。

(가) 脫植民地体制化

무릇 모든 統治權力은 統治目的을 위한 권력구조를 가지기때문에, 植民地統治를 위한 권력구조는 植民地統治体制이다。그리고 政治体制는 植民地統治体制의 植民地의 문화적·역사적·민족의〈모랄〉에 대하여〈反民族的〉이다。

2次大戦後, 植民地統治로 부터 벗어난 여러 민족과 민족집단은 먼저 植民地統治体制로 부터 物理的으로는 물론 精神的으로 벗어나는 民族的課業을 서둘렀다。그리하여 스스로의 民族고유의〈모랄〉에 들어선 体制改革을 단행한 民族国家는 안정되고 正統性이 있는 特有의 또는 일반적인 발전을 始初的인 통일의 狀況에서 이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와같이 植民地体制를 벗어나지 못한 민족 또는 민족집단, 민족국가는 対外的인 영향권 속에서 발전을 전개하면서도 유한〈모랄〉의 신장과 単位民族의 고하여 阻害的인 작용을 직접, 간접적으로 해왔다。

그러한 저해요인은 민족적「모랄」에 머한 阻害만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非民主的 요인으로 잉태되어 버린 것이다。그러므로 植民地体制를 벗어나지못한 민족집단 또는 민족국가는 전통적인 문화적 遺産을 지키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발전을 합리적으로 正当하게 또는順理的으로 收容은 물론 거기에의 適応도 이룩하지 못하고 만 것이다。따라서 植民地体制를 벗어나기 위하여 또는 벗어난 신생국에는 「새로운 기능의 새로운 体制」가 점진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한 기능과 체제의 探択에 실패한 민족국가는 植民地体制下의 寛容의 誘如에 의하여 그들이 新国에서도 계속 統治権力의 座에올라 해방된 민족의 새로운 「모랄」을 육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지니고 있다。그러한 状況에서 「維新」이 필요하다면 植民地統治에 의하여 이그러지고 무디어진 민족적〈모랄〉로 復元해야한다는 状態인 것은 発展史의 必然的인 조건이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서로 分断된상태에서 이데올로기의 터밑을 통하여 異質化를 深化하고 민족적〈모랄〉을 喪失해 감으로써 民族史의 断絶적인 부덕치기에 앞서 歴史的인민족의 概念으로 再編하는것이 영토적인 지역성이 주는 政治発展을 極大化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시 세계第2次大戦이후에 하주에 드는 정치발전적인 体制変化의 유형은 다음의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째는 ①「脫植民地体制」를 위한 体制改革, 둘째는 ②「順機能化」를 위한 体制改革이다。「順機能化」를 위한 体制改革은 다시 전통과 현실간의 乖離가 자아낸 脫会過程의 矛盾으로 부터의 脫皮를 위한 伝統体制로의復歸를위한 体制改革이 있을수있을 것이고, 또 다른한편으로는 밖으로 부터의 충격에 의하여 対内的인 변화가 歪曲된 현실을 초월하는 変化速度를 자아낼 때, 현실 未来 간의 乖離가 빚어내는 体制改革을 들 수 있을것이다。그리고 세째로는 ③민족적〈모랄〉을 確立하기 위한「民族主義的体制」를 위한 体制收革이 있을수 있다。

(나) 民族的「모랄」만이 새 機能의 体制요구

그러한 민족적 모랄의 体制化를 위한 권력구조를 가지기때문에, 植民地統治를 위한 권력구조는 植民地統治体制이다。그리고 政治体制는 植民地統治体制의 植民地의 문화적·역사적·민족의〈모랄〉에 대하여〈反民族的〉이다。

2次大戦後, 植民地統治로 부터 벗어난 여러 민족과 민족집단은 먼저 植民地統治体制로 부터 物理的으로는 물론 精神的으로 벗어나는 民族的課業을 서둘렀다。그리하여 스스로의 民族고유의〈모랄〉에 들어선 体制改革을 단행한 民族国家는 안정되고 正統性이 있는 特有의 또는 일반적인 발전을 始初的인 통일의 狀況에서 이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와같이 植民地体制를 벗어나지 못한 민족 또는 민족집단, 민족국가는 対外的인 영향권 속에서 발전을 전개하면서도 유한〈모랄〉의 신장과 単位民族의 고하여 阻害的인 작용을 직접, 간접적으로 해왔다。

그러한 저해요인은 민족적「모랄」에 머한 阻害만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非民主的 요인으로 잉태되어 버린 것이다。그러므로 植民地体制를 벗어나지못한 민족집단 또는 민족국가는 전통적인 문화적 遺産을 지키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발전을 합리적으로 正当하게 또는順理的으로 收容은 물론 거기에의 適応도 이룩하지 못하고 만 것이다。따라서 植民地体制를 벗어나기 위하여 또는 벗어난 신생국에는 「새로운 기능의 새로운 体制」가 점진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한 기능과 체제의 探択에 실패한 민족국가는 植民地体制下의 寛容의 誘如에 의하여 그들이 新国에서도 계속 統治権力의 座에올라 해방된 민족의 새로운 「모랄」을 육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지니고 있다。그러한 状況에서 「維新」이 필요하다면 植民地統治에 의하여 이그러지고 무디어진 민족적〈모랄〉로 復元해야한다는 状態인 것은 発展史의 必然的인 조건이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分断以前의 状態인 민족적〈모랄〉로 復元해야한다는 것은 発展史의 必然的인 조건이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서로 分断된상태에서 이데올로기의 터밑을 통하여 異質化를 深化하고 민족적〈모랄〉을 喪失해 감으로써 民族史의 断絶적인 부덕치기에 앞서 歴史的인민족의 概念으로 再編하는것이 영토적인 지역성이 주는 政治発展을 極大化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시 세계第2次大戦이후에 하주에 드는 정치발전적인 体制変化의 유형은 다음의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째는 ①「脫植民地体制」를 위한 体制改革, 둘째는 ②「順機能化」를 위한 体制改革이다。「順機能化」를 위한 体制改革은 다시 전통과 현실간의 乖離가 자아낸 脫会過程의 矛盾으로 부터의 脫皮를 위한 伝統体制로의復歸를위한 体制改革이 있을수있을 것이고, 또 다른한편으로는 밖으로 부터의 충격에 의하여 対内的인 변화가 歪曲된 현실을 초월하는 変化速度를 자아낼 때, 현실 未来 간의 乖離가 빚어내는 体制改革을 들 수 있을것이다。그리고 세째로는 ③민족적〈모랄〉을 確立하기 위한「民族主義的体制」를 위한 体制收革이 있을수 있다。

(가) 脫植民地体制化

무릇 모든 統治権力은 統治目的을 위한 권력구조를 가지기때문에, 植民地統治를 위한 권력구조는 植民地統治体制이다。그리고 政治体制는 植民地統治体制의 植民地의 문화적·역사적·민족의〈모랄〉에 대하여〈反民族的〉이다。

2次大戦後, 植民地統治로 부터 벗어난 여러 민족과 민족집단은 먼저 植民地統治体制로 부터 物理的으로는 물론 精神的으로 벗어나는 民族的課業을 서둘렀다。그리하여 스스로의 民族고유의〈모랄〉에 들어선 体制改革을 단행한 民族国家는 안정되고 正統性이 있는 特有의 또는 일반적인 발전을 始初的인 통일의 狀況에서 이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와같이 植民地体制를 벗어나지 못한 민족 또는 민족집단, 민족국가는 対外的인 영향권 속에서 발전을 전개하면서도 유한〈모랄〉의 신장과 単位民族의 고하여 阻害的인 작용을 직접, 간접적으로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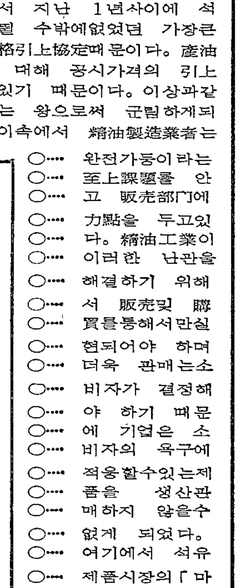
그러한 저해요인은 민족적「모랄」에 머한 阻害만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非民主的 요인으로 잉태되어 버린 것이다。그러므로 植民地体制를 벗어나지못한 민족집단 또는 민족국가는 전통적인 문화적 遺産을 지키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발전을 합리적으로 正当하게 또는順理的으로 收容은 물론 거기에의 適応도 이룩하지 못하고 만 것이다。따라서 植民地体制를 벗어나기 위하여 또는 벗어난 신생국에는 「새로운 기능의 새로운 体制」가 점진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한 기능과 체제의 探択에 실패한 민족국가는 植民地体制下의 寛容의 誘如에 의하여 그들이 新国에서도 계속 統治権力의 座에올라 해방된 민족의 새로운 「모랄」을 육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지니고 있다。그러한 状況에서 「維新」이 필요하다면 植民地統治에 의하여 이그러지고 무디어진 민족적〈모랄〉로 復元해야한다는 状態인

特輯

제10회 本社學術賞入賞作品

特輯

人文社會科學분야 本賞수상자



李泰漢 〈經商大經營學科교수〉

○…国内의 石油製品 販売市場은 大韓石油公社가1964年 설립된 以来 独占状態가 維持되어오다가 1969年6月부터 湖南精油의 工場이 正常稼動됨에따라 寡占状態下에서의 競爭体制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우리나라에서 지난 1년사이에 석유류제품값이 60%나 뛸 수밖에없었던 가장큰 이유는 원유의 公示価格引上協定때문이다。産油国들은 국제석유자본에 대해 공시가격의 引上을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상과같은 상황하에서 소비자는 왕으로써 군림하게되고 과잉생산의 소용돌이속에서 精油製造業者는 완전가동이라는 至上課題를 안고 販売部門에 力點을 두고있다。精油工業이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販売및 購買를통해서만실현되어야 하며 더욱 판매는소비자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에 적응할수있는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여기에서 석유제품시장의「마켓팅」문제가 중시되는 것이다。

一、需要分析및 推移

최근에 이르러 경제개발이 高度化됨에 따라「에너지」需要構造도「燃料 에너지」로 부터 공업용「動力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이에따라「固体에너지」源으로부터 液体化 傾向으로「에너지」源의量的 확보로 부터 質的高度化로 변화되고 있다。

한국의「에너지」공급의 大宗을 이루던 無煙炭이 限界에 도달하여 감에따라「에너지」供給은 국가적인 限界에 到達하였고 따라서「에너지」供給은 국가적임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정부당국은 원활한「에너지」供給을 위하여 1966年에 煙料転換의 정책을 主案하고 油類消費를 積極的으로 장려하였다。

그럼으로 총「에너지」의 源泉別 供給実績은 1955年의 石油類의 需給이 3·9%이었으나 1969年에는 무려 39%로 10倍나 증가하였다。

表(I-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2年 이후의 石油類의 需要展望은 輕油類는 1972年에는 2倍정도의 上昇을 보이는 반면에 重油類는1972年에 비해서 1976年에는 약1·5倍 增加 현상을 나타낸다。

表(I-2)는 1970年-1976年까지의 총「에너지」需要推移를 나타낸것이다。

表에서와같이 우리나라는 液体煙料의構成比가 急速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無煙炭에 依한「에너지」供給에 限界가있으므로 外国에 比하여 液体煙料構成比가 더 높아질 展望이다。따라서 석유류의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比하여 石炭및 練炭은 需要가 감소하고 있다。

二、販賣組織

「마켓팅」組織이란 경영의 내부에 있어서「마켓팅」活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組織、換言하면「마켓팅」業務担当者에게 그 책임과 권한을 割当하고 그에 입각하여「마켓팅」活動을 実行에 옮기게 하는 部門組織이다。

이와같은「마켓팅」部門을 독립시키는것이야 말로 새로운「마켓팅」에 指向하는 목표인 것이다。

한국의 대부분 기업에 있어서는 從来의 販売部에다 市場管理 責任者를 두어 部内의 調整과 企画을 담당하게 하는등 조직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마켓팅」組織은 企業経営内에 있어서「마켓팅」이 차지하는 지위에 따라 그 조직형태가 달라진다。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체의경영조직은 企業体가 대규모이고 기능도복잡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生産部門組織 별조직으로 개편하여 販売・需給 및 輸送貯油・精油・石油化学・財務 및 총무・法務등으로 분리하였다。

다음 1968年에 발족한 湖南精油株式会社는 본사에 業務担当理事아래 直売部・小売部・技術販売部・부산営業部・영업부의 조직망을 가지고 있다。

以上에서 韓国石油工業의「마켓팅」組織을 살펴본 바와 같이「마켓팅」위주의조직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각 형태가 複合応用된 것이나 기본형태를 살펴보면 직능식 조직에 지역에 의한 지역적조직을 가미、편성된 것이 가깝다。

三、販賣價格

1、韓國石油製品의 價格構造

제조업자의 판매가격은 공장도 가격과 貯油所渡価格으로 분류하고 판매인의 価格으로서는 代理店価格과 注油所価格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여기에 대한 솜솜의 価格構造를 고찰하기로 한다。

석유제품의 工場渡価格은 政府의 승인을받아 시행되고 있다。工場渡製品別 가격은 석유제품의 連産品이므로 특수한価格決定方法이 工場渡価格을 형성하는 중요한 要素는 製品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石油製品의 物品税이다。물품세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며 그결과는 제품의 市場価格에 제품별로 큰 차이를 두고있다。 貯油所価格이라함은 各지역별貯油所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하며 종래에는 貯油所까지 輸送費、貯油管理費를포함하는 형식으로 계산되었다。

더리점가격의構成은導入価格、注入費、手数料、瀝損料附帶費라는名目으로되어있다。

이名目上의 要素들을 검토해보면 다음과같다。

注入費란 代理店의 경우「Drum filling charge」로써 代理店의 가격이 결정되었던 당시에는 小量消費가 많았으므로「드럼」사용으로因한 비용을 代理店価格에 포함시켰다。油類消費가 급증한以後에도 특히 京仁地域은 油類消費가 대량화하여 드럼運搬이란 거의 없어졌지만 한 차이는 石油市場에서 거래의 慣行으로 되어있다。그러한 慣行을 現実化하여「방카C」油의 경우에는 二重価格制度를 실시했었던 한다。

현재 石油市場의 경쟁은 代理店단계에서 격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小売店의 단계에있어서는 石油製品의 差別化가 거의 없기에있으므로 完全競爭状態이다。価格을 所与의것으로 보고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価格競爭은 없다。

그러나 注油所에対한 代理店의 価格이 引下된 以後에 쥐할유소小売価格이 相互競爭으로 因하여 引下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韓國의 石油類價格制度및 販賣價格의 告示節次

韓国의 旧石油類販売価格은 政府告示価格制度로 되어있었다。이것은 大韓石油公社가 1969年2月11日字로 最高価格을 告示함으로써 전문적인 능력부족로 나아가고 있으며 근대화 창의력과 自己開発을 통한 販売活動을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大韓石油公社의「마켓팅」部門의 人員現況을 살펴보면 全職員 2千55명중 2百명을 차지하고 있다。이 비율은 全体의 一割을 차지하며 2百명 중에서 73명이「세일즈 맨」이다。

이럴 면에서 볼때 석유산업에 있어서도 他産業과 같이 사람에 의한 販売促進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경영자는 광고매개에 의하여 社会大衆의 생활속에 進入할 수 있다。

또한 一般大衆으로 하여금 관대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납득을 줄 수 있는 情報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광고는 정보를 提供하는수단이라는 의미에서 經営者가 社会大衆에게 提供하는「서어비스」라고도할 수 있다

五、石油産業의 流通經路의實態와問題點

1、市場構造의 변천과特殊性

우리나라 石油市場은 기본적으로 自由競爭이다。생산자는 政府가 지정한 最高価格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제품을 供給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과거의 배급제와는 달리 石油類의 自由購買가 가능하다。이와 같은 시장체제는 1964年의 울산정유공장의 稼動開始、1969年의 湖南精油의 동장等의 전환점을 거치면서 配給制度에서 独占供給으로、여기서 다시 競爭型 供給体制로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石油類市場은 표면상으로는 過剰競爭을 벌이고 있는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油類価格面에서는 오히려 경직성을 띠고 있는 特殊性을 가진다。

国内 石油類価格은 政府가 지정한 最高価格(生産者価格의 경우)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市場価格이 형성됨수 있으나 실제로는 最高価格自体가 기존 2伯社의生産者価格으로 적용되어 심시된 바 있었던 政府告示価格制度와별로다름이 없다。

政府가 1972年 7월21일 石油類값을 14·1%인상함과 동시에 이제까지의 最高価格制度에서「덤핑」행위를 막기위해 単一価格別로 동일시킴으로써 石油産業界의이익에는「플러스」要因이 되었으나販売競爭面에서 会社나름대로 그러한점과가나 탁난다고는 할수없다。이것은 3伯精油会社의 공장입지가 다르기때문이며 또 공장이 있는곳에서부터 대규모 소비지까지의 거리와 消費量이서로 다르고 현재의 市場「쉐어」도 차이가난다。이로 미루어보아 우리나라 油類市場은 급격에서는 기존2伯社間에 市場「쉐어」拡張을 위한 치열한경쟁속에「京仁에너지」의 출현으로 그 熱度가 더욱심해가고있지만 生産者価格面에서는경쟁이排除状態에 있다고하는 특수성을 가지고있음을 알수있다。

이러한점에서 국내의 油類市場은 需給의競爭原理에 의하여 가격이형성되는엄밀한 의미에서의 경쟁시장과는 다소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2、一般的 流通經路

일반적으로 韓国石油産業의 판매시장에 있어서 대표적인 流通経路는 일반제품을 중심으로 파악한것이고 특수제품은 제품의속성에따라 여러가지의 流通経路를 거친다。일반제품의 경우 精油会社는 大需 織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大韓石油公社에서는 本社에 広告部와 各 地域営業所에「세일즈 맨」制度를 두고 있으며 湖南精油会社 역시 油公과 같은 形態를 취하고 있다。

한편 精油会社간의 경쟁의 격화로 直配가 극대로 확대되어 代理店의 격화로 直接流通経路가 되었다。이같은의 이유로 精油会社에게 빼앗기게 되었다。이와같은 流通経路上의 흐름을피하기위해서、

①代理店은 현재 소유하고있는 直営注油所에만 운영하게되고 그이외의 注油所에 있어서는 직접 거래하게된다。

②代理店은 현재 유조自動車(Tank Lorry)와 유조화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운임을받고제품을운반하는 運輸業者가된다

(3) 石油및 軽油副販売等의 집합과관리를 하는 中間都売商의 역할을 한다。

(4) 小規模「방카C」油·重油·軽油를 消費하는 공장을 직접하여 精油会社와 연락시키는 中間都売商이 된다。

이러한 체계로 보면 다음과 같이 자체가 投資에 적정한 利益을 얻기 때문에 스스로 발하고는 자연히 이러한代理店을 도태되고 외국에서처럼 Commission Agent들이 油類市場에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5、流通經路上의 問題點

1970年代에 들어와 国内油類市場은 심각한 혼란상태로 빠져 들어가고있다。지금 전국의 代理店数는 油所는 販売하는 1千4百여개이다。이중 油公의제품을 販売하는 90여개이며 注油所는 京仁은 10月부터 새로이 취발유 側이 35%、京仁이 5%程度이다。

京仁은 生産、市販하게 되므로 区間도 30~40伯의 注油所를 年内 京仁地域에만 집중되고 있다。이같이 流通経路上의 混乱과 確保할 出荷量은 한마디로 말해 精油会社를 위하여 異状나지 않으며 그는 販売하는 것은 오는 10月부터 새로이 취발유 側이 35%、京仁이 5%程度이다。이중 油公의제 京仁

特輯

第10회 本社學術賞入賞作品

要因究明이 先行돼야

自然科學분야

權 寧 大 〈慶林大林學科교수〉

「화이버·보드의 工程과 性質」

(朴持斗·林4、趙炳畢·林1)

木材加工의 제조기술은 급진적으로 발전하여 시험연구추진에 더한 요망은 많이 기대되는 바이다。製造技術上의 문제점으로서는 원료개척에 대한 문제이며 未利用纖維자원을 積極的으로 사용하여 각원료에 적응한 製造技術을 究明하여 자원가치를 높여서 木材利用의 합리화를 期하여야 된다。

製造法에 대한 문제점은 經濟的限界를 고려하여 원료集荷能力에 적응되는 비교적 小規模 제조기술과 설비에 依한 簡易製造방법이 요망된다고 본다

이러한 견지에서 製造技術의 기초적 요인의 究明과 실용실험의 연구가 병행되어야하며 本試驗에서는 각종 설비 기계가 필요하나 藁稈要因究明이 적절하다고 본다。

「겨울 江邊」짜임새좋아

創作文學분야·詩

徐 廷 柱 〈詩人·文理大國文学科교수〉

詩部 응모작품의 質量이 모두 例年에비해 풍성치 못한것은 섭섭한 일이다。무슨 가뭄을 타서 이러는지 제군들의 發奮이 있어야겠다。

文理大 國文科 趙源柱君의"겨울 江辺에서"의 5편"仏敎大 仏敎科 韓 泰植君의"백합의 소리"의 6편、文理大 國文科 朴廷熙君의"漁夫의노래"의 5편、文理大 英文科 尹順君의"녹색 병실에서"의 4편、文理大 英文科 鄭 亨君의"이별"의 5편—모두 서사람의 작품중에서 当選作을 고르지 못하고、趙源柱君의"겨울 江辺에서"를 겨우 奬励賞에 該당시키지 않을수 없었던 점은 遺憾로선 매우 허전한 일이었다。편년에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보여주기 바란다。

趙源柱君의"겨울 江辺에서"는 小品인데도 詩人다운 눈과 가슴이 보여서 그의 將来를 기대케하고 있다。詩人은 무엇보다도 먼저 남 유달리 무엇을 더 남은 눈으로 보아 理解해야 고、또남유달리 잘 울리는 共鳴의 가슴을 가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趙君은 이점 애써 잘 개발만 해나간다면 좋은 詩를 쓸수 있을 것이다。그가 먼 남은 다섯편의 詩는 부분적으로 빛나는것도 없지 않지만 未備한 꼬과 虛句들이 아울러 눈에 띄이니 다시 고쳐 쓰기를바란다。金洙의 짜임새로보아"겨울 江辺에서"를 뛰어났다。

◇權寧大敎授

◇徐廷柱敎授

◇吳永壽씨

◇吳学柒씨

資質과 發展可能性인정

創作文學분야·小說

吳 永 壽 〈小說家〉

遂菴 게 넘어온 울모단편 여럼편중에서 다음의 세편을 골랐다。

1、素描(金元錫)

2、두꺼비의 自由(李雲源)

3、바람 부는날(丁採瑟)

素描—家庭(金活)과 품의 돌바구니에서 젊은 세대의 焦燥와 彷徨과 취약점을 그린 作品。

두꺼비의 自由—完全한 自由에는 죽음의 代価가 지불된다。즉、두꺼비의죽음은 두꺼비 자신이 선택한 自由를 為한 意志의 代価였던 것이다。

바람부는날—가슴에 틈틈이 불어오는 어떤 착각인지 모르겠다。

끝으로 기초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 더욱많은 연구자로가 나오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안띠·드라마」生命잃어

創作文學분야·戲曲

吳 學 榮 〈劇作家·同門〉

극적수법이다。그러면 이런 작품이 흥미하기 쉬운 테크닉의 세련도가 결여되고 있어 사실상 안띠드라마로써 생명을 상실하고 있다。

모든 예술작품은 주제 즉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나 본작품은 주제마저 불명확해 작품의 격조등의 희극적 필요조건을 排除한 방법등은 반대한극장 채 못간 사거리에서 였다。

신호등에 불이 바뀌길 기다리는 뻐스속에서 바로 옆에 붙어선 검은 승용차안에 그는 있었다。

칠팟 보인 옆얼굴은 오만한 미소하고 있었다。나랑히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는 여인은 반가운 손님과차를 마시러 나갔다는 향이였고、신호가바뀌었는지 차가 서서히 앞으로 갈 때 까지 그들의 뒷모습을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개를 열로 좋아하지 않는 향이가 안 떠까지만〉한다는 자신과 타협을 끝내고 장인영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여자 고등학교에 국어 선생으로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딱지고 보면 선생이라는게 그렇게 역겨운 직업만을 아니였다。

그들이 하는 질문이라는 것은 거의가 들에 박힌 문법적인 문제라든가、참고서 같은 걸 보고 와서는 선생님은 이시귀가 이렇렇 상징한다고 하셨는데 이런게 아닙니까 따위였다。학교 시절에 비교적 성실했던 탓인지 질문에 들아질 필요를 느껴 본적은 없었다。

그러나 질문은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날 어김이 없이 향이는 나를 만나기 위하여 써클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네게서 편을 빌리게 되었다。

한국의 사정으로는 급정이는 가난하다는 거였다。나는 소설을 쓰기보다 먼 우리들 형성하게 되었다고 들은 써클과 되었다。

써클의 달되를 심언하자 우릴은 이런 말로 충고했다。

「향이가 너의 가정적이란 점에 끌렸다면 환영 하지만、너의 무기력이 가정적이라고 착각 되었다면 결코 환영할수 없어。 알량한 여자하나로 너의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게 슬프고…현지만 난 끝내 문학을 포기하지 않을거다。 두고봐라。한국의 문학사는 밝나는 영웅을위하여 한 페이지를 할애해야 할거다。그런데 너는 어떠면 네 전부일 수도 있는 문학을 여자와 바꾸는 희극을 연출하고 있다。 그걸 가정적이라고 자위하지 말라。향이지하필유사어(類銀之)는 必有死敵)라던가。』

아무튼 나는 문학을 버리고 생활을 얻었다。

이런게 생활이라는 것일까?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단란한 가정의 정체였을까? 태양은 하늘 한 복판에 박혀 마구짖눌러 댄다。그냥 쳐다보기 면을려 생각을 하지 않곤 견딜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가슴 터질 것 같은 분노와 피로감이 온몸을 찍어 내린다。

돌봄 내해다다란 아사날 었다하였고 본디 내해다다란 아사날 었다하였고 향이가 양품점으로 말렛이를 하자고했을 때만 해도 나 혼은 얼들을 할수가 없었다。아무리 부부라 할 지라도 자기 세계는 서로 용납해 주어야 한다는 이의 주장을 수궁했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자。오만원 안짝의 청금이면 돌의 생활은 그렇저렇 꾸려 나갈수 있었다。향이는 왜 자기의 세계는 주장하면서 나의 세계는 인정하려 들지 않는가。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문지르며 아무데라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세수를 하려고 마당으로 내려서는데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무수한 불티들이 아른거리다。 민혈층이다。

그리고 보니 이번엔 소 간을 한번도 먹지 못했다。항상 여름을 무사히 나려면 두꺼비간은 먹어야 한다。그렇데 이번 여름은 이게 뭐냐。

현깃숭이 가시자 잡았던 기둥을 놓고 수돗가로 갔다。물은 미적지근하다。

시원한 맛이라곤 없고 죽을때도없다。

「염라。」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니 정말 슬이 력 따라 나오는 고미를 안고 들어 가며 격정스레 몰는 욱이에게 양품점엘 갔다고 일렀지만 정작 갈 곳은 없었다。

이렇면 그땃놈 아는놈이라도 하나 있으면 물었다고 팔목을 나오며 생각했다。아동복 센터에서 제일 귀여운 옷을 사입히 하야한 두두를 신겨서 손목을잡고 나서면 나도 어엿한 아버지가 될거다。

향이는 어린엘 가지고 쇠지 않단다。 우선 두 좀 벌어놓고 내가 직업을 바꾼 후 생활이 안정되거면 낳아보잔다。

어쩌면 그미는 나의 직업이 우리들의 아이에게 결료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그런게 중얼거리고 나니 정말 슬이 력 따라 나오는 고미를 안고 들어 가며 격정스레 몰는 욱이에게 양품점엘 갔다고 일렀지만 정작 갈 곳은 없었다。

이렇면 그땃놈 아는놈이라도 하나 있으면 물었다고 팔목을 나오며 생각했다。아동복 센터에서 제일 귀여운 옷을 사입히 하야한 두두를 신겨서 손목을잡고 나서면 나도 어엿한 아버지가 될거다。

향이는 어린엘 가지고 쇠지 않단다。 우선 두 좀 벌어놓고 내가 직업을바꾼 후 생활이 안정되거면 낳아보잔다。

어쩌면 그미는 나의 직업이 우리들의 아이에게 결료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염라。」

그렇

特輯

제10회 本社學術賞入賞作品

「보드」强度, 比重에 比例

伸縮同一, 뒤틀림적어

自然科學分野 獎勵賞

화이버·보드의 工程과 性質

◇朴持斗·趙炳畢/共同研究 (林学科·4) (林学科·1)

「화이버·보드」란식물섬維質을 주원료로 하여이를「펄프」化하고여기에 접着制를 加하거나 또는成型裝板한 板狀제품을 말한다.

針葉樹 원료로 만들어진 보드는 색갈이 비교적 밝은 편이고 纖維長이 길어서 강도가 높으며 활엽수는 比重이 높다. 이 제품의 일반적 제조工程을 보면 원료인 목재를 調木처리, 펄프化하고, 첨가제를 混入한후 일정한 두께로 成型하여 加熱壓縮한 다음 열처리와 調湿처리하여 정해진 크기로 재단하게 된다.

그 원료는 製材工場, 합판공장, 기타 목재공업의 牌材및 잔사뿐만 아니라 森林에 있어서 저절 및 未利用材등과 같은 이용가치가 낮은것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원료목재는 먼저 樹皮를 제거한 다음 削片化시켜 解纖工程에 들어간다.

식물섬유를 물리적 혹은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섬유를 낵포하고있는 중간층을 파괴·용해시켜 団体상태로 만드는것을 펄프化라고 한다. 이때 얻어진 흐트러져 있는 상태의섬유잡단을펄프라고부른다. 이 제조용 펄프에 요구되는 抄造時 두텁게 형성되므로 脫水가 용이해야 하며 높쩌는 原料 펄프內에 混在하는 길고 잡은 纖維比率이 적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제로는 제조되는 보드가 구조적 강도를 지니기 위하여서는 펄프中에 원료목재의 접착유효성분이 大量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또 「화이버·보드」에 耐水性및 기타의 여러가지 性質을 부여하는 添加물질을 충첨하여 size 劑라 하고 첨가하는 것을 sizing이라고 한다. sizing 효과는 원료펄프의 종류, refining정도, stock 濃度, 접착제의 종류, 첨가량및 농도등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므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해 진다.

펄프化되어 Size劑가 첨가된 화이버를 성형하는 것을 抄進이라한다. 일반적으로 「보드」의 强度를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解纖後, 섬유의 微細化를 충분히 행하고 抄進工程에서 섬유의 결합이 잘되도록 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렇게되면 脫水性이 저하되어 抄進능력이 떨어지므로 적당한 點을 해결하는것이 현지 제조상의 문제점이 되고있다.

抄造板上에서 抄造되어 소정의 크기로 절단된「화이버·맷트」를 加熱压縮板로 熱压하여 성형전조시키는 공정을 Hot-Pressing이라고 한다. 가열압축기의 온도는 1백75~2백도C 정도며 열압축시 펄프中의 목재의 성분은 물리 또는 화학적변화를 일으킨다. 즉셀루로즈는 온도가 상승됨에따라 固有强度가 1천6백에서 6백까지 떨어지므로 섬유의 强度가 저하되나접착작용이 현저하여 그결과 보드의 강도가 증대된다.

여기에서 보드의 내수성및 강도등 물리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처리를 한다. 열처리의 효과는 原料樹種, 펄프의 성질, size등의 처리유무등에 따라 다르다. 동일제조 조건하에서는 열처리온도와 시간에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처리온도가 낮을 수록 상대적으로 처리시간은 길어진다. 즉 1백60도의 경우엔 3시간, 1백50도의 경우는 4~8시간이 적당하다.

보드의 흡수율은 처리온도가 높을 수록 낮아지며 또 처리시간이 긴것이 그효과가 크다. 열처리에 의해 흡수율이 감소되는것에 수반하여 두개방향의 膨潤率도 개선되며 그효과는 고온시간처리의 경우가 크다. 이것은 열처리에 의해 세포막자체가변질되어 섬유속의 수분의 흡착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드의 강도는 比重에 비례한다.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열압축시 압력을 높여야 되지만 섬유간의 孔隙을 적당한 同形体로 유지 시키므로써 비중을 높일수 있다.

열처리된 보드는 全乾狀態이므로 이를고온다습한 심내에 넣어 吸湿시키거나특수한 방향에 吸湿시키는 경우에는 그목적에 적합한 형태와 첨가물갖도록 二次加工을 하기도 한다.

화이버·보드의 표준품은 표면이 평활하고 독특한 색조가 있어 용도가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가구나 기타 다른 공업재료로 쓰이는 경우에는 그목적에 적합한 형태와 첨가물갖도록 二次加工을 하기도 한다.

화이버·보드는 목재가 지닌 결점을 보완한 木質재료로서광범위한 용도에 사용가능 하며 몇가지특징을 가지고 있다.

木材는 異方性을가지고있어 섬유방향과 횡방향의 膨潤率도 개선되며 그효과는 고온시간처리의 경우가 크다. 이것은 열처리에 의해 세포막자체가변질되어 섬유속의 수분의 흡착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제조방법및 사용원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성질을 지니게되나 그 일반적인 성질은 다음과같다.

水分에대한 性質로서 吸湿 또는 吸水하면 두께의 길이의 변화를 일으키므로 平衡含水率까지 吸湿시켜 치수의 안정을 기해야한다. 熱에대한성질은 제조공정에서 高熱로 처리하기때문에 同一비중의 목재및 他의 木質재료에비해 열전도율이 낮다. 일반적으로 보드의 耐충격성은 合板보다 나소높다. 보드의 함수율이 증가하면 섬유의 靭性이 증가하므로 耐충격성이 커진다.

工程과정과 성질에 관하여 열구·검토한 결과화이버·보드의 제조조건의 검토는 다음과 같이 있었다. (但, 시험의 재료는 임업시험장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였음)

製造조건의 검토

①접착제 첨가율과 체결압력이 증가할 수록 비특 비중은 커지나 발수제 체결압력과 체결온도가 높을수록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②함수율은 Sizing처리에 고도의 영향을 받으며체결온도 압력및 시간이 커감에 따라 감소하였다.

③함수제는 흡수율과 고도의 유의성을 나타내며 체결온도 압력및 시간 또한 유의성을 보이고있다. 체결조건의 처리가 높을수록 흡수율은 감소하였다.

④두께팽창율은 발수제및 접착제 첨가율에 큰영향을 받으며 체결압력과 시간및 온도의 상승에따라 감소하며 또한 흡수율과는 고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⑤접착제의 첨가율 증가에 따라 휨强度는 증가하나 발수제의 경우엔 그 반대의 형상을 나타냈으며 체결온도와 압력이 낮으면 靭性, 높을면 剛性을 나타냈다.

⑥시험결과 pinus類의 섬유판 제조시엔 접착제 첨가율 1%이하, 체결온도 1백80度, 체결압력 40 kg/㎠以上, 체결시간 15분이 최적조건으로 생각된다.

奬勵賞作品要旨

금년들어 本社學術賞은 第10回를 맞았다. 장구한 기간동안 東大生의 學的 頂上을 가름하는 本賞은 學究意慾의 촉진제 였음은 자타가 인정한다. 人文社會科學分野 奬勵賞 3作品과 自然科學分野 장려상作品 要旨를 拔萃揭載하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

<編 言>

人文社會科學分野 奬勵賞

妙淸의 亂

呂益九 (史学科3年)

—結 言—

人同은 歷史的 存在이다. 現狀이 지나간 삶에 基因한다. 現狀은 아픔 것은 그만큼 많은 悲劇을 지니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픔의 과거를 무수히 가졌다고 해서 결코 절망할 수는 없다.

六堂은 그의 「朝鮮歷史」에서 「미지근하고 하품나는 記錄의 연속이 朝鮮史의 外形이다. 革命없는 歷史는 人形과 같다」고 했다. 이렇듯 歷史의 眼目이 歪曲되어 있을때 절망은 깊은데. 하나 하나의 사실에다 多角度의 照明을 하고 나서야 스스로의 흐뜸는을 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歷史的 信念에 立脚해서 記述할 때 비로소 빛을 発하게 된다.

丹齋는 이런 信念으로 妙淸의 亂을 다루었다. 그러기에 그는 이 亂을 歷史의 表面까지 浮刻시킬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亂을 叛亂으로 보지않고 하나의 運動으로 보았다. 아마도 革命으로까지 昇華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주장처럼 「朝鮮史 一千年來 一大事件」이라고 일컬을만큼 그렇게 多大한 意義를 가지고있는 것일까?

本小論은 이亂의 발생과정과 그 背景을 考察하여 새로운 意味를 부여하고자 試圖한것이며 나아가서 派生된 問題—民族分裂의 內的遠因까지 窺知하고자 한다.

一、妙淸以前의 內外政勢

高麗는 初期以來 文臣優位政策으로 貴族을 부패 했고 여러가지 분규가 발생하였다. 그런 大小回의 분규는 드디어 李資謙対 尹安仁一派의 權力爭奪戰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에서 승리한 李資謙은 14歲의 어린애인 仁宗을 即位시키고 딸기야·王의자리를 노렸다. 이기미를 알아챈 仁宗은 李資謙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궁궐로 침입하여 松岳山下 祖宗의 舊宮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仁宗은 그후 李資謙과 拓俊京을 이간시키는 정책을 써서 그들을 각각 제거시켰다.

이렇게 國內가 소란하면 당시 國際政勢 역시 미묘하게 돌아가 우리 國土를 짓밟고 있었다. (金) 이때 여보내었으나 高麗에서는 金의 動向을 보고 이라 하였다. 國內外가 혼란되어 있을때 妙淸이 나오면서 西京의 중소성에 國力을 表出하기 시작하였다. 西京은 新羅末 僧 묘청 道詵이 지은 새로운지세 諸圖讖書의 圖讖思想에 의해 高麗太祖以來 仁宗에 이르기까지 西京 林原駅에 王氣가 있으니 移御하여 上京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妙淸은 어떻게 이 西京 林原駅에 王氣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 근거를 살펴보자. 高麗의 國名은 高句麗의 首都이었던 것이다.

太祖는 이곳에 백성을 이주시키고 行政区圖을 六部로 나누고 分司形式(郡立行政体制)의 각기관을 두었다. 太祖가 서경을 소중히 여긴 근원은 있었으며 西京을 北方開拓의 근거지로 삼으려는데 있었다. 그는 西京으로 옮기고 구려의 옛땅을 회복하면 수도를 太祖의 遺訓에 따라 자주 巡駐하였고 특히 예종은 分司制度를 확립하여 中央과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와같이 古都로써의 지위에다 西京출신 사상은 서경인들에게 자부심과 愛鄕心을 길러주게되어 드디어 遷都運動의 大流를 形成하게 되었던 것이다.

二、妙淸의 出現

妙淸은 西京의 중심로써 같은 서경인 鄭知常의 사회적 관심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지위용의 先後관계등의 객관적사정, 피해자의 복수사정, 관청의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敗訴한다는 民事法 理論에 대한 중대한 修正이라고 본다. 이것은 사회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法律思潮의 적용이며 무과실책임이론과 같은 社会的 思想을 市民法인 민법에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公害에 대한 손해배상은 損害賠償과 留止(差止) 請求權으로나눌 수 있다.

生産性의 上昇을 전제로 하는 기업의 適正利潤을 통해서 企業의 經営合理化를 위한 환경조성이다. 곧 生産性上昇의確立을 信用制度의 핵심적인 원천이 되며이로 인해 기업의 自動造作力을 더욱 장화될 것이다.

이러한 經済規模 즉技術革新을 전제로 適正設備投資로 生産性의 向上 및 그 要因을 究明할수 있다. 한편 생산성이 높은 部門의 생산비저하는 자유경쟁력강화에 직결되어 전전한 기업활동이 루어지고, 이를 매개로하여 物価安定을 성취할수 있으며 비로소 公正去來法도 참다운 국민경제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것이다.

補完의 方針을 비쳤다. 工産品価格制度 協定料金의 8월5일 線 凍結을 위한 基準価格制度 그 상의 引上을 不許하고, 流通과정에서의 가격引上은 行政力과 초과이윤에 대한 課稅로서 規制하며, 引上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同盟支援으로 가격引上을 억제한다는 것이 主內容으로 되어있어 年3%의 물가안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企業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価格안정의에도 外債의 순조로운 相換, 성장을 위한 新規投資등의 문제점이 山積해 있다는 점에서 原価부담의 切下는 가장 重要示되어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都売物価는 年2~3%씩 引上되어도 消費者物価는 6~7%씩 上昇하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반드시 한국과 같은 「패턴」으로 물가상승이유발되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GNP기준으로 기업의 비중이 33%를 상회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불때 消費者物価는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物価의 안정화方向은 3%선의 억제가 기업의 성장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可能한것이냐 하는 문제와 소비자들가기준이 얼마나 국민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느냐에 関鍵이 있다고 본다.

結 論

純金히 경제적局面에서 考察을 통해서 볼때 이번 八·三조치는 不実經営 기업의 긴급구제책이자 경기대책으로서 私債凍結·特別金融支援·인플레의 구조적 惡循環의 근절과 개혁, 産業再編成과 민간투자활동 유도책으로서의 산업합리화등을 목표한 일대 혁신적 정책제기이다.

生産経済의 構造的改革으로서 産業合理化의 局面은 거기에 動員된 有效性과 彈力性으로 所期한 成果를 이룰수 있는 展望이다. 이 政策体系는 資本은 確然한 운동법칙에 입각해서 財産稅과 所有権의 移動을 도외시하고 生産経済諸分野에 급격한 자본축적을 성숙케하여 산업의 구조와 体質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이론상 바람직하다고 하겠고 그에 부수될 영업한 適者生存과 自然淘汰방지를 위한 기업인의 노력이 뒤따라야할것이다.

八·三조치를 계기로우리經済가 정상 코스를찾으려면 우선 경제의 성장「펌프」를 줄여서 安定과 部門間의 均衡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저축의 增大를 통하여 투자자원을 조달하는 방도를 강구해야한다. 아울러 산업간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農業開発이 계속추진되고, 原資材自給度를 높이기위한 長期対策이 절실히요망된다.

한편 投資의 合理化와 소비생활의 건전화로 국민경제의 総需要를 줄이는 시도가 필요하다. 油類需要를 줄이기 위한 石炭산업의 적극 육성, 수출산업의 구조개편도 필요하다. 전원한 기업의계속 지원을 도모하고, 不実기업의 정비는 부단히 추진되어야 한다.

經済에는 결코 기적이 없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업인의 본연의 자세로의 북귀와 金融秩序의 확립으로 한국經済를 튼튼히 하는 것도가 필요하다. 油類需要를 줄이기 위한 石炭산업의 적극 육성, 수출산업의 구조개편도 필요하다. 전원한 기업의계속 지원을 도모하고, 不実기업의 정비는 부단히 추진되어야 한다.

妙淸이 죽은 뒤 大義名分이 없어진 이 亂은 한낱 「反抗」의 感情싸움으로 變質되어 「反抗을위한 反抗」의 虛妄한 싸움이 되어버렸다. 이런 反抗精神은 亂의 討平에 1年2個月이란 긴 세월을 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結 語>

妙淸은 한 時代의 意志를 貫徹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자기를 実現하고 자기時代를 実現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부패와 墮落에 젖은 政局을 刷新하고 革新하여 高麗人에게 진취적 기상을 불어넣어 주고자 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失敗로 돌아가고 亂의 中心인 그마저 죽었을때 모든 樣相은 달라지게 된 것이다.

이 亂은 우리나라 歷史上에나 南道人과 北道人의 爭이라는 面에서 최초의 點을 찍을 수 있다. 西京의 行政組織이 中央政府와 対等하였기 때문에 크게 일어났고 또 오래 끌수 있었다. 막바지에서 亂後 西京의 地位는 떨어졌고 一般民衆사이에 西京에서 새로이 國家의 安寧과 泰平을 도모하자는 提案이었다. 仁宗6年에 仁宗은 妙淸一派인 金安에게 命하여 西京 林原駅에다 궁궐을 經営케하였는데 이때 趙匡은 1월22일에 妙淸을 불구하고 役事를 독촉하였다. 3월 玉의 詔書중에 國號에 관해서 言及이 없었다는것은 妙淸이 죽은후 趙匡이 다시 叛하였을 때 「大為」를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妙淸은 이 亂의 초기 성격을 파악하는데 다만 이것이 계획적으로 叛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妙淸의 靈魂을 위로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까?

妙淸이 죽은 다음 大義名分이 없어진 이 亂은 한낱 「反抗」의 虛妄한 싸움으로 變質되어 「反抗을위한 反抗」의 虛妄한 싸움이 되어버렸다. 이런 反抗精神은 亂의 討平에 1年2個月이란 긴 세월을 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編 言>

人同은 歷史的 存在이다. 現狀이 지나간 삶에 基因한다. 現狀은 아픔 것은 그만큼 많은 悲劇을 지니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픔의 과거를 무수히 가졌다고 해서 결코 절망할 수는 없다.

六堂은 그의 「朝鮮歷史」에서 「미지근하고 하품나는 記錄의 연속이 朝鮮史의 外形이다. 革命없는 歷史는 人形과 같다」고 했다. 이렇듯 歷史의 眼目이 歪曲되어 있을때 절망은 깊은데. 하나 하나의 사실에다 多角度의 照明을 하고 나서야 스스로의 흐뜸는을 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歷史的 信念에 立脚해서 記述할 때 비로소 빛을 発하게 된다.

丹齋는 이런 信念으로 妙淸의 亂을 다루었다. 그러기에 그는 이 亂을 歷史의 表面까지 浮刻시킬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亂을 叛亂으로 보지않고 하나의 運動으로 보았다. 아마도 革命으로까지 昇華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주장처럼 「朝鮮史 一千年來 一大事件」이라고 일컬을만큼 그렇게 多大한 意義를 가지고있는 것일까?

本小論은 이亂의 발생과정과 그 背景을 考察하여 새로운 意味를 부여하고자 試圖한것이며 나아가서 派生된 問題—民族分裂의 內的遠因까지 窺知하고자 한다.

一、妙淸以前의 內外政勢

高麗는 初期以來 文臣優位政策으로 貴族을 부패 했고 여러가지 분규가 발생하였다. 그런 大小回의 분규는 드디어 李資謙対 尹安仁一派의 權力爭奪戰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에서 승리한 李資謙은 14歲의 어린애인 仁宗을 即位시키고 딸기야·王의자리를 노렸다. 이기미를 알아챈 仁宗은 李資謙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궁궐로 침입하여 松岳山下 祖宗의 舊宮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仁宗은 그후 李資謙과 拓俊京을 이간시키는 정책을 써서 그들을 각각 제거시켰다.

이렇게 國內가 소란하면 당시 國際政勢 역시 미묘하게 돌아가 우리 國土를 짓밟고 있었다. (金) 이때 여보내었으나 高麗에서는 金의 動向을 보고 이라 하였다. 國內外가 혼란되어 있을때 妙淸이 나오면서 西京의 중소성에 國力을 表出하기 시작하였다. 西京은 新羅末 僧 묘청 道詵이 지은 새로운지세 諸圖讖書의 圖讖思想에 의해 高麗太祖以來 仁宗에 이르기까지 西京 林原駅에 王氣가 있으니 移御하여 上京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妙淸은 어떻게 이 西京 林原駅에 王氣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 근거를 살펴보자. 高麗의 國名은 高句麗의 首都이었던 것이다.

太祖는 이곳에 백성을 이주시키고 行政区圖을 六部로 나누고 分司形式(郡立行政体制)의 각기관을 두었다. 太祖가 서경을 소중히 여긴 근원은 있었으며 西京을 北方開拓의 근거지로 삼으려는데 있었다. 그는 西京으로 옮기고 구려의 옛땅을 회복하면 수도를 太祖의 遺訓에 따라 자주 巡駐하였고 특히 예종은 分司制度를 확립하여 中央과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와같이 古都로써의 지위에다 西京출신 사상은 서경인들에게 자부심과 愛鄕心을 길러주게되어 드디어 遷都運動의 大流를 形成하게 되었던 것이다.

二、妙淸의 出現

妙淸은 西京의 중심로써 같은 서경인 鄭知常의 사회적 관심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지위용의 先後관계등의 객관적사정, 피해자의 복수사정, 관청의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敗訴한다는 民事法 理論에 대한 중대한 修正이라고 본다. 이것은 사회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法律思潮의 적용이며 무과실책임이론과 같은 社会的 思想을 市民法인 민법에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公害에 대한 손해배상은 損害賠償과 留止(差止) 請求權으로나눌 수 있다.

生産性의 上昇을 전제로 하는 기업의 適正利潤을 통해서 企業의 經営合理化를 위한 환경조성이다. 곧 生産性上昇의確立을 信用制度의 핵심적인 원천이 되며이로 인해 기업의 自動造作力을 더욱 장화될 것이다.

이러한 經済規模 즉技術革新을 전제로 適正設備投資로 生産性의 向上 및 그 要因을 究明할수 있다. 한편 생산성이 높은 部門의 생산비저하는 자유경쟁력강화에 직결되어 전전한 기업활동이 루어지고, 이를 매개로하여 物価安定을 성취할수 있으며 비로소 公正去來法도 참다운 국민경제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것이다.

補完의 方針을 비쳤다. 工産品価格制度 協定料金의 8월5일 線 凍結을 위한 基準価格制度 그 상의 引上을 不許하고, 流通과정에서의 가격引上은 行政力과 초과이윤에 대한 課稅로서 規制하며, 引上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同盟支援으로 가격引上을 억제한다는 것이 主內容으로 되어있어 年3%의 물가안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企業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価格안정의에도 外債의 순조로운 相換, 성장을 위한 新規投資등의 문제점이 山積해 있다는 점에서 原価부담의 切下는 가장 重要示되어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都売物価는 年2~3%씩 引上되어도 消費者物価는 6~7%씩 上昇하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반드시 한국과 같은 「패턴」으로 물가상승이유발되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GNP기준으로 기업의 비중이 33%를 상회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불때 消費者物価는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物価의 안정화方向은 3%선의 억제가 기업의 성장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可能한것이냐 하는 문제와 소비자들가기준이 얼마나 국민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느냐에 関鍵이 있다고 본다.

結 論

純金히 경제적局面에서 考察을 통해서 볼때 이번 八·三조치는 不実經営 기업의 긴급구제책이자 경기대책으로서 私債凍結·特別金融支援·인플레의 구조적 惡循環의 근절과 개혁, 産業再編成과 민간투자활동 유도책으로서의 산업합리화등을 목표한 일대 혁신적 정책제기이다.

生産経済의 構造的改革으로서 産業合理化의 局面은 거기에 動員된 有效性과 彈力性으로 所期한 成果를 이룰수 있는 展望이다. 이 政策体系는 資本은 確然한 운동법칙에 입각해서 財産稅과 所有権의 移動을 도외시하고 生産経済諸分野에 급격한 자본축적을 성숙케하여 산업의 구조와 体質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이론상 바람직하다고 하겠고 그에 부수될 영업한 適者生存과 自然淘汰방지를 위한 기업인의 노력이 뒤따라야할것이다.

八·三조치를 계기로우리經済가 정상 코스를찾으려면 우선 경제의 성장「펌프」를 줄여서 安定과 部門間의 均衡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저축의 增大를 통하여 투자자원을 조달하는 방도를 강구해야한다. 아울러 산업간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農業開発이 계속추진되고, 原資材自給度를 높이기위한 長期対策이 절실히요망된다.

한편 投資의 合理化와 소비생활의 건전화로 국민경제의 総需要를 줄이는 시도가 필요하다. 油類需要를 줄이기 위한 石炭산업의 적극 육성, 수출산업의 구조개편도 필요하다. 전원한 기업의계속 지원을 도모하고, 不実기업의 정비는 부단히 추진되어야 한다.

經済에는 결코 기적이 없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업인의 본연의 자세로의 북귀와 金融秩序의 확립으로 한국經済를 튼튼히 하는 것도가 필요하다. 油類需要를 줄이기 위한 石炭산업의 적극 육성, 수출산업의 구조개편도 필요하다. 전원한 기업의계속 지원을 도모하고, 不実기업의 정비는 부단히 추진되어야 한다.

公害問題小考

周恒李 (法学科3年)

共害쟁의 推進等을 研究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公害防止法을 제정했으나 死文化되었으며 各言論기관과 학술단체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여왔었다. 当局은 大氣오염방지책으로 자동차에 배기가스정화기 부착을 의무화 했으며 良質연료를 도입하여 脫黃시킨 石油를 제조해 내려고 하고 있다.

水質오염대책으로 下水処理場의 설치및 工場폐수淨化시설등을 강화하고 있다.

長期的対策으로 工業地域에 오염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既存諸法을 취합하는 환경보호法을제정 國立環境研究院을 설치할것을구상 중에있다.

二

63년11월 정부는 現行 公害防止法을제정 공포했다. (法律第1436號로 공포) 이어 71년이의 미비점을 시정하고 벌칙강화, 対策기구의 신설등을 골자로하는개정안을 채택하였다. 同法은 공해대상의확대, 公害安全기준의 규격화, 공해방지시설의 奉前제출과 공포조등을 규정하였다.

공해방지법에의한 방지措置가이느정도 실천되고있는가? 보도에의하면 67年~69年까지 년간발생건수가 평균 4천여건이나. 그러나 当局은 작업방법, 기구개선등으로 연간6백60건정도를 해결해왔고 지난 10년에는 피해자 6만4천명을 변공해건수를 6천2백건이나 전수, 이중3천9백건을처리, 그중에서는처벌인조업중지는1백13건뿐이었다.

이런 결과를 고찰해보면 시설改善을외면하는 企業들이 계속있는限 어느 한 個人이나 団体의 힘으로는 公害防止를 기대할 수 없고 행정기관과 企業, 市民이 三位一体가 되어야 공해를효과적으로 방지할수 있다하겠다.

三

民法 제217条 제1項은 土地所有者는 煙煙·熱氣体, 液体·음향·진동 其他이와 유사한것으로 이웃 居住者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이웃 거주자는 前項의 유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忍容할의무가 있다. (2백17조2항)

妨害금지의무를 1項은 負担시키는 동시에 同条2項은 受忍의 限度를 넘는 방해에 대해서만妨害금지義務가 있다고밝힌것이다.

한편 英美法의 경우를 보면소 企業人의 公正去來法 違反하고 있다.

그러나 同条의 제요소를 피해자가 公害発体에 대해 피해상황을 立証하기란 곤란한일이다. 故意나 過失, 違法行為등의 問題에 加害者가 피해발생의 방지에 최선을 다했어도 피해가있는 경우에는 企業主가 피해보상을할의무가 없어진다. 이런경우에 공해가 사회에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善良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見地에서 손해발지가 과학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의 여부, 즉加害者에게 無過失責任要件을완화해야마땅하다고생각한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기까지의 因果過程을 낱낱이 証明해야 됐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敗訴한다는 民事法 理論에 대한 중대한 修正이라고 본다. 이것은 사회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法律思潮의 적용이며 무과실책임이론과 같은 社会的 思想을 市民法인 민법에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公害에 대한 손해배상은 損害賠償과 留止(差止) 請求權으로나눌 수 있다.

生産性의 上昇을 전제로 하는 기업의 適正利潤을 통해서 企業의 經営合理化를 위한 환경조성이다. 곧 生産性上昇의確立을 信用制度의 핵심적인 원천이 되며이로 인해 기업의 自動造作力을 더욱 장화될 것이다.

이러한 經済規模 즉技術革新을 전제로 適正設備投資로 生産性의 向上 및 그 要因을 究明할수 있다. 한편 생산성이 높은 部門의 생산비저하는 자유경쟁력강화에 직결되어 전전한 기업활동이 루어지고, 이를 매개로하여 物価安定을 성취할수 있으며 비로소 公正去來法도 참다운 국민경제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것이다.

補完의 方針을 비쳤다. 工産品価格制度 協定料金의 8월5일 線 凍結을 위한 基準価格制度 그 상의 引上을 不許하고, 流通과정에서의 가격引上은 行政力과 초과이윤에 대한 課稅로서 規制하며, 引上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同盟支援으로 가격引上을 억제한다는 것이 主內容으로 되어있어 年3%의 물가안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企業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価格안정의에도 外債의 순조로운 相換, 성장을 위한 新規投資등의 문제점이 山積해 있다는 점에서 原価부담의 切下는 가장 重要示되어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都売物価는 年2~3%씩 引上되어도 消費者物価는 6~7%씩 上昇하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반드시 한국과 같은 「패턴」으로 물가상승이유발되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GNP기준으로 기업의 비중이 33%를 상회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불때 消費者物価는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物価의 안정화方向은 3%선의 억제가 기업의 성장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可能한것이냐 하는 문제와 소비자들가기준이 얼마나 국민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느냐에 関鍵이 있다고 본다.

結 論

純金히 경제적局面에서 考察을 통해서 볼때 이번 八·三조치는 不実經営 기업의 긴급구제책이자 경기대책으로서 私債凍結·特別金融支援·인플레의 구조적 惡循環의 근절과 개혁, 産業再編成과 민간투자활동 유도책으로서의 산업합리화등을 목표한 일대 혁신적 정책제기이다.

生産経済의 構造的改革으로서 産業合理化의 局面은 거기에 動員된 有效性과 彈力性으로 所期한 成果를 이룰수 있는 展望이다. 이 政策体系는 資本은 確然한 운동법칙에 입각해서 財産稅과 所有権의 移動을 도외시하고 生産経済諸分野에 급격한 자본축적을 성숙케하여 산업의 구조와 体質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이론상 바람직하다고 하겠고 그에 부수될 영업한 適者生存과 自然淘汰방지를 위한 기업인의 노력이 뒤따라야할것이다.

八·三조치를 계기로우리經済가 정상 코스를찾으려면 우선 경제의 성장「펌프」를 줄여서 安定과 部門間의 均衡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저축의 增大를 통하여 투자자원을 조달하는 방도를 강구해야한다. 아울러 산업간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農業開発이 계속추진되고, 原資材自給度를 높이기위한 長期対策이 절실히요망된다.

한편 投資의 合理化와 소비생활의 건전화로 국민경제의 総需要를 줄이는 시도가 필요하다. 油類需要를 줄이기 위한 石炭산업의 적극 육성, 수출산업의 구조개편도 필요하다. 전원한 기업의계속 지원을 도모하고, 不実기업의 정비는 부단히 추진되어야 한다.

經済에는 결코 기적이 없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업인의 본연의 자세로의 북귀와 金融秩序의 확립으로 한국經済를 튼튼히 하는 것도가 필요하다. 油類需要를 줄이기 위한 石炭산업의 적극 육성, 수출산업의 구조개편도 필요하다. 전원한 기업의계속 지원을 도모하고, 不実기업의 정비는 부단히 추진되어야 한다.

八·三措置와 韓國經濟의方向

許 韓 旭 (経済科3年)

八·三措置 高度成長策, 內資微弱結果

◇◆◇

企業의 經營合理化契機

淨化對策 시급

權利침해保護說이 妥當

1、高度成長의난맥상

1·2차5개년계획기간 중각각연평균 8·3%와 11·4%라는 고도의 GNP성장을 이룬 同기간중엔 경제, 이후의 課題를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究明하게 된다.

1·2차5개년계획기간 중각각연평균 8·3%와 11·4%라는 고도의 GNP성장을 이룬 同기간중엔 경제, 이후의 課題를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究明하게 된다.

2、8·3措置의 파급效果

정부가 시도하는 바로 明해 본다.

キ 外資의존型의 고도성장의 부조리를 파헤쳐이 으로 본다.

4、8·3措置후의 政策課題

(1)私債陽性化와 公金融擴大

현시점에서 정책立案者들은 私金融을 陽性化해야 하고 信用貸出을 넓혀야 하며 私債가 흡려갈 수있는 資本市場을育成해야 한다. 私金融陽性化는 制度金融의 補完으로 推進되어야 한다. 信用協同組合法, 相互信用金庫法, 短期金融業法등을 근거로 金融機関을보완할수 있는 第二金融団의 형성도고려되었으면 한다.

또한 今後의 銀行貸出이 확대되더라도 企業의 限界에 達했기 때문에 追加貸出이 힘든 現実이므로 이를 위해서 信用貸出의 拡大가 뒤따라야 한다. 信用貸出의 拡大는 金融業務의 彈力性 회복을 前提로 한다. 따라서 硬直化된 金融이 풀릴 수있는 金融의 노력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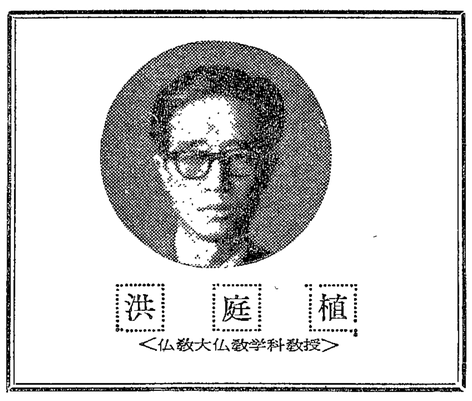
아울러 私債市場을 健全한 資本市場의 育成도 必要하다. 또한 私金融의 代替을 위해서는 公金融의 확대가 불가피하며 그 만큼 流動性의 適正化는 安定基調를 堅持케할 것이다. 그러므로 相値要因의 調和는 金融의 能率化와 더불어 「八·三조치」후의 가장 중요한 政策課題가 된다.

(2)物價安定

「인플레」의 惡循環을근절하기 위해서는 金利의 더욱 引下와 함께 換率의 安定을 통해서 生産「코스트」負担을 덜어야 한다.

政府는 高米価政의 再検討, 76년까지 公共料金率의 凍結, 換率의 現水準에서 점정적인 凍結을전제로 工産品価格의 인상을 억제하려고 하였으며 「인플레」의 惡循環을 근절하게 되어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불교성전 刊行의 文化史적 意義



洪庭植
<仏教大仏教学科教授>

주지하는 바와같이 우리 宗団은 지난 11월30일 「불교성전」을 간행하여 曹溪寺에서 廻向式을 갖고 그 弘通을 한국불교의 이름으로 부처님께 願하였다.

이로써 한국불교의 大衆化운동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셈이지만 이것은 中国을 거쳐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고구려小獸林王2년(372)으로부터 1천6백년, 正音이 創制된 이조 世宗25년(1443)으로부터 5백29년의 일에해당된다. 이번 간행된 「불교성전」은 〈불교〉와 〈正音〉이라는 두 文化創造적 기틀을 바탕으로形成되어온 한국문화의 두갈래 흐름이 하나로 결합되는 一點을 나타내는 동한 文化史적 의의를갖고있다.

불교가 한국문화에 끼친 영향은 새삼 말할필요도 없다. 한국문화는불교와 불교는 서로 불교가 없었던 시기에해당된다. 이것은 우리 文化史의 거의 3분의2에 해당되는 기간이며 우리문화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에해당된다.

이조 5백년의 抑仏策으로 불교는 한때 된서리를 맞게되지만 이미 이루어진 한국문화의 불교적 바탕이 그로 인하여 파괴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조 5백년의 抑仏策을 거쳤음에도 오늘날 우리 文化財의 75%이상이 불교문화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알수가 있다. 한국문화는 불교를 바탕으로 형성된 불교문화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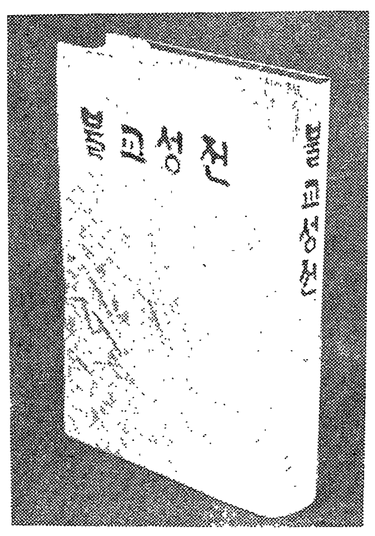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문화형성의 母体를 이루고 있는 이 불교는 中国仏教의 연장이라고 평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漢文化圏의 영역을 脫皮하지 못한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불교는 그의 聖典語로서 中国 文字를 그대로 傳承·保有하고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불교가 한국문화形成의 母体가 되고 있었던시기 진작 한국민족의 大衆속에는 土着하지 못하고있음을 나타낸다.

더구나 불교의 使命이 衆生敎化에 있을때 이러한 言語的 障壁은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커다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신라의 慈宿·慈空·大安·元曉등의 불교 대중화운동과, 고려 均如의普賢十願歌(향가) 등은 한국불교의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世宗大王의 正音創制는 「國之語音 異乎中国」이라고 序言하고 있는 바와 같이漢字적인 表音文字를 배제하여 강력히 한글專用을 부르짖어 소위 「한글時代」를 가져온것은 민족 主体性의 自覺이요, 오래 막혔던 문화창조의 의욕이 이조5백년의 문화창조의 拘束적 要因에 더해서 반발 否定的인 힘으로 나오지않을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문화의 진정한 「한글化」는 불교의 「한글化」가 이루어지기전에는 실현될수 없음을 틀림없다. 왜 그러냐면, 한국문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것은 불교이며, 따라서 불교는 한국에 있어서 漢文化의 가장 뿌리깊은 伝承·保持者라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漢字적 불교문화가 생아 놓은 最高의 金字塔이라고 할수 있는 高麗藏 불교성전 刊行의 文化史적 意義

禪과 教, 균등히 다루고 民族史的 의의 至大



佛教大衆化에 進一步

八万大藏經의 한글번역이 착수된 것은, 이러한 민족문화 형성에 있어서 일종에서 가장 근간적인 일이 수행되고 있는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한글 대장경」의 간행을 국가에서 재정적인 補助를 해주고 있음은 그 사업의 중요한 단순히 불교에 국한된 일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詩는 가장 압축된 意味의 線」이라고 말한다 이번 月刊 「現代文学」(11月號) 추천으로 韓国詩壇에 조용한 巨歩를 내딛은 方晳俊군. (文理大 国文科 4年)

지난 「詩文学」 8月號에 작품 「남루의 내 그림자는」 및 「裙子」로서 初回 추천을 받고 다시 「現代文学」에 「소나타」 「류마티스Ⅱ」 「류마티스Ⅳ」 「눈썹에서 부서지는것은」 「동토에서 詩心을 묻아 배어있어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E·파운드」의 詩論자 「E·파운드」의 「作家의 作業」은 「詩의 길이 보단 더 힘을 기울여라」고 말한다고.

「E·파운드」의 詩論자 「E·파운드」의 「作家의 作業」은 「詩의 길이 보단 더 힘을 기울여라」고 말한다고.

그의 「作家의 作業」은 「詩의 길이 보단 더 힘을 기울여라」고 말한다고.

그러면서도 現代詩가 점점 難解를 일어가고있는 점을 생각해야 될이라고. 그는 오히려 추천소감에서 「나는 詩에더한 매력은 대단하지만 내現実에서 詩는 전혀 이방인이라고 逆說的으로 詩에더한 사

침체東國文學에 새活氣를

聖經、佛教서 詩的 靈感얻고

「現代文學」 추천으로 데뷔

◇右로부터 「仏教学報」, 「東国政治」, 「울아 오지않는 메아리」

佛教學報 〈제9집〉

本校 仏教文化研究所에서 지난 11月 出刊되었다.

申基珍주임교수의 巻頭言에이어 「民族과 民族主義」를 특輯으로 엮어 多角的인 民族主義의 理論定立에 중점을 두고있다. 民族과 民族主義 序說(兪光濬), 後進国民族主義의 成長過程(李鍾巖), 네오·내쇼날리즘의特性(楊在仁), 共産主義国家의 民族主義(李廷植), 韓国統一과 民族主義展開過程(閔丙天), 韓国民族主義의 体系化論(權允赫)으로 国内外情勢와 南北対話, 統一문제등으로 시급한 民族的 使命에 큰보탬을 주고 있다.

特別寄稿의 The Strategy and Tactic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the Period of 1921to1965(金鎭敏), P·R의 本質(李茂雄), 知識階層과 政治発展(沈定根)이 빛을 더하며 政党宣伝(洪先基), 北韓의 教育実態(李惠炯), 議会政治의 危機와 그対策(曺儀煥) 등 学生論文이 주목할만하다.

附錄으로 同窓会 名簿 22面등 1백9십여페이지의 菊版.

東國政治 〈제6집〉

本校 法政大学 政治外交学会의 『東国政治』 第6輯이 나왔다.

申基珍주임교수의 巻頭言에이어 「民族과 民族主義」를 특輯으로 엮어 多角的인 民族主義의 理論定立에 중점을 두고있다. 民族과 民族主義 序說(兪光濬), 後進国民族主義의 成長過程(李鍾巖), 네오·내쇼날리즘의特性(楊在仁), 共産主義国家의 民族主義(李廷植), 韓国統一과 民族主義展開過程(閔丙天), 韓国民族主義의 体系化論(權允赫)으로 国内外情勢와 南北対話, 統一문제등으로 시급한 民族的 使命에 큰보탬을 주고 있다.

特別寄稿의 The Strategy and Tactic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the Period of 1921to1965(金鎭敏), P·R의 本質(李茂雄), 知識階層과 政治発展(沈定根)이 빛을 더하며 政党宣伝(洪先基), 北韓의 教育実態(李惠炯), 議会政治의 危機와 그対策(曺儀煥) 등 学生論文이 주목할만하다.

附錄으로 同窓会 名簿 22面등 1백9십여페이지의 菊版.

柳惠子 隨筆集

—「들아오지 않는 메아리」—

낙엽을 쓸어 모으듯 생활주변에서 얻은미쉘러니. 저자 柳惠子씨는 女性특유의 섬세한필치로 현대생활속에서 어린시절의 추억들을 담고있다. 「깨졌가 흐르는 窓」 「보라빛의 秘密」 「人笛, 그 허망한 신기루」 「마음이 가난한 者는…」 「들아오지 않는 화살」 등으로 章을 나누어 싣고있다.

本校 国文科出身으로 MBC라디오에서이색적인 女流PD로활약하고있는氏는 본저서의 대부분이 방송극주변에서 얻어진 소재이고 보면 다소 특이한 내용이라 보겠다. 「달빛에 담는 사연」 등 주옥같은 60편. 넓지는 시평과 섬세함으로 매스콤에 종사하며 얻어진 현대적감각은 아무 부담없이 읽혀지고있다.

光風霽日記

붓가는대로 쓰는것이 수필이다. 거기에는 一定한 형식이나 규약이 없다. 人生의 한관조에서 사색을 유유히 풀수있고 개성있는 필자의 체취를 담을수도 있다.

「光風霽日記」의 著者 崔井石同門은 현재 大邱曉星女大 교수로 현대문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남남하면서도 유려한 필치는 소설같이 읽히며 부드러운 인상도 주고 있다. 결코 지식을 남용한 현학적인면도 보이지않고 예리한 눈을 사회의 어두운면을 헤쳐내기도한다.

『文学이란 영어리가 될수도없고 명령구리일수도 없으며 無骨뼈이 된다거나 눈지꾸러기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自序에서 밝히듯이 섭실하면서도 곧은 의지로 호감을 준다.

20여년 文壇生活. 이제 知天命이되어 첫隨筆集이되는 본저서는 「옷의 哲学」 등 40여편이 수록되어있다.

仏教精神을 밑바탕으로하여 견실한자세가 귀절마다 넘쳐 讀者는 뿌듯한기슴을 느끼게 될것이라.

本校 博物館所藏

佛教美術全集 <9>

文 明大

佛教建築(1)

※보협인 다라니塔

앞에서 우리는 탑속에넣는 사리장치에 대하여 알아보았거니와 이제 그사리를 봉안하고있는 탑에 대하여 잠깐 알아보자 탑은 Stapa 또는 tapa라하여부처님의 뼈 를 봉안하는 무덤이다. 부처님이 열반하시자 Hiranyavati강변에서 다비하여 사리(遺骨)를 8大国에 똑같이 분배하였으며 각나라는 탑을 축조하여 그사리를 모셨다고한다.

그후 Aso'ka王이 즉위하자 이 8大塔에 봉안되어 있던 사리를 再分配하여 84,000의 탑을 인도 전역에 만들어 불교를 널리 홍통했다고 전해내려온다. 사실 탑은 부처님이 돌아가신후가 장 신성시되었고 숭앙되었던 예배의 주대상이였다. 그래서 당시의 탑은 보통 50㎜이상의 大塔들이었다. 이것은 慈超스님이나 唐의 玄奘法師의 기록에서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는 것이다. 산치의大塔은 그 좋은 예이거니와 이러한 塔건립전통은 예배의 주대상이 불상으로 옮겨진 후에도 여전히 성행하여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도 楼閣의塔이 만들어졌다.

지금남아있는 石塔을 가장 많이 조성하였는데 독특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흔히들 石塔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다.

초기의 것은 응대 장엄하고 중기의 것은 섬세 화려한것이 특징이지만 우리학교는 이러한 양식들을 소장하고 있지않으며 다만 고려시대 이후의 것이 다소 소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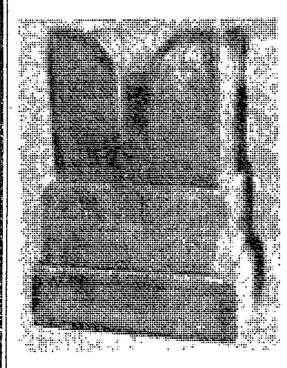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탑은 시대야 다소 내려오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유일한 것이며 독특한 양식인 賀婆印陀羅尼塔이다. 당탑(唐末)의 불교탑답게 으로 중국에서는 불교가 크게쇠퇴하였는데 이것을 증명하고자한 사람이 吳越王전홍숙이었다.

그는 아소카왕이 84,000의탑을만들어 불교를 크게 중흥하던 故事를 본받아 인도양식을 더거도입한 보협인다라니탑을 84,000점이나 만들었는데 이 일본에서 중래의 어느 필도 맥우 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발견되지 못했었다. 이것은 3년전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으며 우리가 소장하게되어 学界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아소카왕양식의 탑은 탑난간이나 문에 부처님의 여러가지 전생설화를 조각하고 있는데 이제품의 탑들도 탑신에 직접조각한것이 아니라 별도 그것을 층층히 마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탑재들이 몇개 없어진것 같아 완전한 것은 아닌것 같다. 탑의 꼭대기가 되는 相輪部는 연꽃을 상징하고 접시가 있는데 4면모두에 세겨져있다. 탑신에도 전생설화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가령 태자로 있을 때 비둘기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살을 베어주던 전생이나 배고픈 호랑이에게 자신의 몸을 먹여주어 호랑이를 살리던 인욕, 자비같은 설화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조각수법 또한 일품이어서 극보적인 가치를 갖고있는 탑이라고하겠다. 〈仏教美術専任研究員·講師〉

國寶的 價値에 特異한 양식



新設되는 本校出版部

본교내의 급증하는 간행물및 출판물을 신속원활하게 출판·공급케 될 「東国大学校出版部」가지난2일 재발족 되었다.

이번에 발족을 보게된 출판부는 그간 교양학부 교재를 출판, 공급하기위하여 설치되었던 「교양교재편찬위원회」를 폐합, 명칭공히 더 학출판부로서 더학교재 뿐만 아니라교수들의 論著, 기타 간행물을 총괄하여 출판하게된다.

본교의이러한종합적인常設기구로서 출판부가 처음 생긴것은 아니었으, 교양과 교재출판위원회 전에 동 출판부가 있었다가 통합한 것이었다. 그나마 그 행한 일이었지만 설마 그 기가 제제되 그나마 그 記者 「사회의 소음」라는 사명 감을만자하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MBC라디오에서이색적인 女流PD로활약하고있는氏는 본저서의 대부분이 방송극주변에서 얻어진 소재이고 보면 다소 특이한 내용이라 보겠다. 「달빛에 담는 사연」 등 주옥같은 60편. 넓지는 시평과 섬세함으로 매스콤에 종사하며 얻어진 현대적감각은 아무 부담없이 읽혀지고있다.

휴게실

◇…취직시즌이되자 各대학의 취업율에 대해일반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있는 요즈음 지난5일자 夕刊 J日報 사회면 톱기사인 「각대학취업율 조사」기사에 本校生은 10명으로나와있었다. 경상대의근 입대자를제외한 95%이상 취업율은 본교에서도 다름없이 本校生 校生이 27명이상취업한것은 이미 金潔体석좌교수된사실. 7일8일자 신문에정확한 기사가 게제되 그나마 그 記者 「사회의 소음」라는 사명 감을만자하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도서 수 없는 모양.

◇…취직시즌이되자 各대학의 취업율에 대해일반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있는 요즈음 지난5일자 夕刊 J日報 사회면 톱기사인 「각대학취업율 조사」기사에 本校生은 10명으로나와있었다. 경상대의근 입대자를제외한 95%이상 취업율은 본교에서도 다름없이 本校生 校生이 27명이상취업한것은 이미 金潔体석좌교수된사실. 7일8일자 신문에정확한 기사가 게제되 그나마 그 記者 「사회의 소음」라는 사명 감을만자하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도서 수 없는 모양.

同窓會 소식

56년도 法學科졸업동기회

法政大学 法学科56년도 졸업 동기회(会長=金東正·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오는15일오후 6시 시내종로구 도렴동 소재 조안빌딩3층 한국발효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 1년간의 결산보고와73년도 사업계획등 제반문제를토의할 예정인데 망년회를겸하게 되는이번모임에 동기 회원들의많은참석을바라고있다.

연락은 전화 (75) 1413·4094 崔礼炯등 문에게하면된다.

李祐鍾同門 출판기념회

国文科 李祐鍾(進明女高教師) 동문의 출판기념회가 8일오후6시 신문회관에서 있다.

李同門은 이번에 詩集 「韓国의 소리」를 냈바있다.

휴게실

◇…5일, 영어·영어작문시험을 치른 교양학부 학생들은 행여 「원터·스클」을 수강하는 행운(?)을 누릴까봐 저마다 근심스런 표정들.

『60점받고 간신히 피할 바에야 차라리 이번에도 결려 70점 받는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農林大 K콩의 제법 뼈있는 의견.

지난 夏期放学에도 「셈머·스클」의 부부를 받아 고함쳤 영자를 늦게 탓지만 뒤에 성적표를보니 한결 보기좋더라고. 蠻福之房오, 転禍為福이라!

아홉들 勉学의 결실만 은 버리지않는다면 그까짓 것 정품이야 하지않아도 좋겠읍니다.

○…5일, 영어·영어작문시험을 치른 교양학부 학생들은 행여 「원터·스클」을 수강하는 행운(?)을 누릴까봐 저마다 근심스런 표정들.

『60점받고 간신히 피할 바에야 차라리 이번에도 결려 70점 받는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農林大 K콩의 제법 뼈있는 의견.

지난 夏期放学에도 「셈머·스클」의 부부를 받아 고함쳤 영자를 늦게 탓지만 뒤에 성적표를보니 한결 보기좋더라고. 蠻福之房오, 転禍為福이라!

아홉들 勉学의 결실만 은 버리지않는다면 그까짓 것 정품이야 하지않아도 좋겠읍니다.

詩 추천 完了된 詩

方晳俊君

「원터스클」—幸運兒에게? "寧實報道" 外面 하다니"

校한지 일주도 채 못되어 시작된 期末考査로학년 말 시험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때문에 학교당국은 신설된 교내 출판부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있을 때까지 적극 아인 지원을 아끼지 말것이며 더학의출판물은 그내용의 권위에 부 독립채산제이므로 수지적 균형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독자의 기호여부도 일부에두 게되겠기때문이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심오한학술 적연구의 발표보다는 교재중심의 일반적인 출판물간행에 그칠 염려가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한편 자금조달상의 난점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학교당국은 신설된 교내 출판부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있을 때까지 적극 지원을 아끼지 말것이며 더학의출판물은 그내용의 권위에 부 독립채산제이므로 수지적 균형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독자의 기호여부도 일부에두 게되겠기때문이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심오한학술 적연구의 발표보다는 교재중심의 일반적인 출판물간행에 그칠 염려가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 解明인즉 『열람실좌석 시작된 지난 6백 30석인데 후 3052석인데 이 6백 30명 가량은 남아 그돌만을 위하여난 방식설을 유지하기는 곤란하다는 「우차스런 변명이었다나.

「大学의 심장」 「학문연구의 요람」이라는 도서관도 후위앞에는 어쩔 것도 없는 모양.

○…休校令 해제로 開校 그 解明인즉 『열람실좌석 시작된 지난 6백 30석인데 후 3052석인데 이 6백 30명 가량은 남아 그돌만을 위하여난 방식설을 유지하기는 곤란하다는 「우차스런 변명이었다나.

「大学의 심장」 「학문연구의 요람」이라는 도서관도 후위앞에는 어쩔 것도 없는 모양.

당신을 招待합니다.

캐롤과 함께 저무는 1972년/
하얗게 내리는 눈송이 마다 그리운 얼굴들…
X-Mas 유리의 명멸하는 불빛마다 못다한 아쉬움들속에
마음껏 울고싶고 한없이 걷고싶은건
당신과 내가 젊기 때문만은 아니겠죠/
여기 젊음의 낭만과 知性의 苦悩를 함께할
사랑의 낙원 코스모스 룸에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그이를 함께 초대 합니다.
코스모스 룸에서는 X-Mas와 년말을 같이 즐길수 있는 호화롭고
재미있는 플랜과 기량성 있은 演芸人의 특별 출연으로
벌써 가슴 부풀게 하고 있읍니다.
우리 다같이 코스모스룸에서 사랑의 손결을 달아 봅시다.

출연진
코스모스룸 2층 : 로멘티카, 이용복, 김세환, 김도향, 윤희성, 석찬.
코스모스룸 3층 : 청성조와 엔젤스, He 5, 장미화, 루비나, 박재성,
파라다이스라운지 : 이장림, 캔디시스터즈, 지은아, Pianist 김정호

코스모스룸
COSMOS ROOM · BEER GARDEN

겨울江邊에서

第10回 本社學術賞 創作分野 장려상

趙 源 柱

모두가 열어 놓았다.
맑은 가슴만이 흐르고
아가의 눈빛이 솟는다.

젊은 가슴을 소용돌이 치면서
하구로 하구로 내려가다가
나는 문득
놓여버린 아버지의 열어놓은 열쇠를 보았다.
열어놓은 世上의 귀퉁이를 깨고서
아버지의 가슴속을 드려다본다.
아직 맑게 흐르는 그 무엇을 숨기고
아가의 눈빛에 밀려서 내려가지만
결국은 저승에서 부둥켜안고
영원히 열지않는 그 世界에서 돌결칠 것을.

얼어붙었다. 모두가
맑은 가슴만이 흐르는
겨울 江邊의 하구에서
얼굴도 보지못한 할아버지를 만나
춥추다 춥추다 울어버렸다.

<文理大 國文科3年>

겨울에 살다

尹 範 模

◇겨울이야기

바람이 인다. 季節은 다시 바뀌고 鋪道에 바람이 인다. 여미는 옷깃에 흔들리는 바람. 하여 벗이여! 다시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를 하자.

날은 펄잎의 落葉을 밟으면서, 혹은 쏟아지는 함박눈이라도 맞으면서 우리들의 얘기를 하자. 쉽로 겨울이오면 볼도 멀지 안테니까.

겨울이 찾아와 옷깃을 여미게하고 어깨를 움추리게 한다. 모두가 안으로고개를 틀리면서 참으로의 나를 만나볼때이다. 아무리 겨울이 얼렸던 창문을 꼭꼭 잠그게한대도. 바람, 바람이 이는 것이다.

겨울에 쓰는 이야기, 거기엔 바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語脈가 있다. 차겁고 둔중한 사랑이 울는다.

「바람이인다!…살아가야겠다.

떠기는 내 책을 열었다간 다시 닫고,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는 바위들로 부터 마구 용솟음치고 날아가라, 온통 눈부신 책장들아! 부셔라, 파도여! 부셔라 네 희열의 물로써 三角帆을 모이줄던 이 고요한 지붕을!」

「P·발레리」의 『바다의 묘지』는 새로운 季節을 안겨주며 이 겨울에 산다.

◇우리들의 患部는

絕望하라. 祖國에 살아가는 來日들에게 피를 토하라. 季節이 있고 우리들의 言語가 흥글때 들녘에 서서 晩歌를 부르자.

歷史를 펼칠때 불려오는 群像, 거기엔 한 사람의 言語, 한 사람의 生活보단 웅웅그려진 「이들」들만거룩하다. 「但人意識의 不毛地域」에 西風이 온다.

바람에 날려 온 蹊徑을 펼친다.

안개가 내리고/가난한/더 없이 가난한/수은 등의 그늘 속을/두개의 계절이 江을 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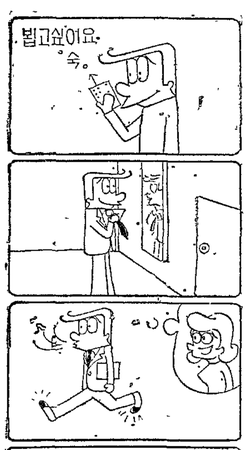
언제이고/주어질 날들/난 몸써도 바람을 타며/슬프도록 작아지고 있다.

지금 이 시간/내 소유의 작은 영역에/하나의 城을 갖고 싶은데/피곤한 어휘들이/흩단하게 나부낀다. /어지럽다 /차겁게 누어야겠다.

無識하라. 이제절 허술한 말모임에 자기를 숨기지말자. 不立文字. 조용하게 그리고 착하게 죽도 할 때이다. 이마금의 기침이로 우리들의 오늘을 쉘해보자.

◇바람따라

山속에서 별을 헤며하 겨울에 쓰는 이야기, 거기엔 바람속에서 꿈틀



바람이 인다.
여미는 옷깃에 흔들리는
바람.
「바람이 인다.
살아가야 겠다.」

冷水치료

音 樂

映畫, 演劇같은 綜合藝術이나 어떤 부류의 單獨藝術이나를 막론하고 그 対象이 지니는 美的 효용성을 들김을 우리는 흔히 趣味 또는 기호라 부른다.

이 但人취미에는 일일이 열거할수 없을만큼 각양각색의 취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音樂을 취미로 꼽는 사람은 결코 적지가않다.

音樂은 他예술이 지니지못하는보다 感覺的인 효소력을 지니고있다. 현대의 組織化, 기계화된 메카니즘 文明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音樂의 필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추운 겨울 그대가 혼자 되었을때, 사랑이 壁으로 막힌 방에 누워서 「라르고」를 들어보라. 거기에는 告解聖事와도 같은 경건함과 성결임이 있다.

뼈아프게 내가犯한罪마저도 그때는 이미 용서하고 싶어진다.

잠중에 시달릴때 冷水를 들이키듯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그렇다고해서 남달리 음악에 이해가 밝다거나 훌륭한 鑑賞者는 더욱 못된다. 다만 이따금씩 못견디게 음악이 그립워 질때가있다.

이 「미치도록 간절한 必要性」이 결국에는 강직한 감상태도가 아닐까? 때때로 우리는 無氣力과 초조에서 오는 日常의 잔재로 鈍感한 自己를 발견하고 우울해 진다. 이럴때. 들려오는 「소팡」의 「피아노협주곡」은 한모금의진한生命水이다. 즉 어가는 나를 再確認하는 희열과 함께 우리의 感性이 재정비되는 순간이다.

아름다운 피아노의 선율—. 내가 음악을 미치도록 좋아하는 근본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現代의 젊은이들은 저 푸른 하늘 저 흰 구름 저 산 저 강 저 나무 저 꽃 저 사람 저 모든 것을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